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력사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슬기와 재능으로 과학과 문화,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승리한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입니다.》

5학년 조선력사에서는 우리 나라 봉건시기 마지막왕조였던 리조봉건국가의 력사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리조시기 력사 역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로 자랑높다.

우리는 여기에서 리조봉건국가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으며 통치제도는 어떠했는가, 경제와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16세기 일본의 대규모침략과 19세기 후반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침략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조선력사과목학습을 잘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한 부강조국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1장. 15세기 리조봉건국가의 발전

제1절. 봉건통치제도의 강화

1. 수도 한양건설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운 리성계일파는 1394년 10월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한양(서울)으로 옮기였다.

리성계일파가 왕권을 탈취한 후 부랴부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된것은 개경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고려의 수도였던데다가 개경사람들이 리성계가 비렬한 방법으로 왕자리를 빼앗은 내막을 알고 새 왕조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한편 리조통치배들은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겨 왕궁을 크게 짓고 새 왕조의 위엄을 떨쳐야 앞으로 나라도 다스릴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한양으로 옮긴 통치배들은 수도건설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한양건설에는 수많은 인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였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높고 가파로운 벼랑우에 큰 돌들을 날라올려 성을 쌓고 진펄을 메우고 성문을 세우는 등 어려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에 치워 상하거나 굶어죽었다. 하기에 한양건설공사가 끝난 뒤 성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인민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둘레 40리의 수도성안에는 동서로 뻗은 큰 도로인 종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펼쳐졌다.

양지바르고 살기 좋은 지대인 종로의 북쪽에는 왕궁인 경복궁, 창덕궁과 그 부속건물들, 관청들, 량반들의 집이 배치되였다. 그러나 사람 못살 남쪽의 습한 지대에는 주로 상인과 일반백성들의 살림집들이 배치되였다.

성안에는 또한 서북쪽으로부터 동남방향으로 청계천이라는 개울이 파지고 종로를 따라 물건을 파는 행랑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한양은 인민들의 고된 로동과 많은 희생의 대가로 건설되였지만 그것은 그들자신의 보금자리로 된것이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이 틀고앉아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반인민적정책들이 꾸며지는 곳으로 되였다.

이 시기 한양은 20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세도시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2. 중앙통치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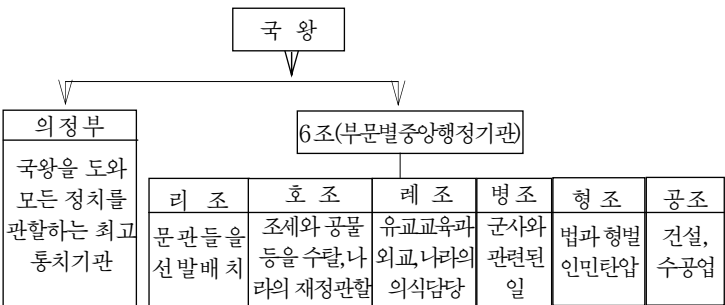
《…우로부터 만들어낸 정권이란 대체 어떠한 정권입니까? 그것은 인민의 참가없이 세운 부자들의 정권이며 다수를 반대하는 소수의 불공정한 정권입니다.》

15세기에 꾸려진 리조봉건통치기구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인민을 억압착취하며 량반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통치기구였다.

리조의 국왕은 통치기구의 맨 웃자리에 틀고앉은 최고통치자였다.

국왕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에게 요구되는것이라면 무엇이든 마구 내리먹였다. 그리고 전국의 인민들로부터 금은보화와 값비싼 물품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아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국왕밑에는 최고통치기관인 의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인 6조가 있었다.

의정부에는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을 도와 나라를 통치하는 왕 다음가는 높은 급의 관리들이였다.

6조에는 리조, 호조, 례조, 병조, 형조, 공조 등 6개의 중앙관청이 있었다.

리조는 봉건국가의 관리들을 선발배치하는 일, 호조는 인민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탈하거나 나라의 재정을 맡아보았으며 례조는 유교교육과 외교, 나라의 봉건의식을 담당하였고 병조는 군사와 관련되는 일, 형조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법과 형벌, 공조는 건설과 수공업 등을 맡아보았다.

매개 조의 장관들을 판서라고 하였다. 즉 리조판서, 호조판서, 례조판서 등으로 불렀다.

※ 6조는 한때 의정부밑에 두기도 하였다.

3. 지방통치기구

리조시기 지방통치기구는 도와 고을들로 되여있었다. 전국을 8개도 즉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등으로 나누었다.

8도중에서 경기를 제외한 매도의 이름은 그 도안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고을의 이름 첫자를 붙여서 지었다.

즉 평안도는 평양의 평과 안주의 안, 함경도는 함주의 함과 경성의 경, 황해도는 황주의 황과 해주의 해, 강원도는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 충청도는 충주의 충과 청주의 청, 전라도는 전주의 전과 라주의 라, 경상도는 경주의 경과 상주의 상자를 각각 따서 붙였던것이다.

8도강산이라는 말은 8개 도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8도는 비록 봉건통치배들이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제나름대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우리 인민들이 생활해오는 과정에 설정하였던 지역적경계에 기초하여 생겨난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철령(강원도)을 중심으로 그 동쪽지역을 관동, 서쪽지역을 관서, 북쪽지역을 관북이라고 불렀으며 전라도 김제의 벽골제를 경계로 그 남쪽을 호남, 서쪽을 호서, 소백산줄기의 죽령

이남지방을 령남, 경기의 서쪽 바다가지방을 해서라고 불렀다.

인민들이 자연경계를 기준으로 불러오던 이 지역들은 15세기에 각각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로 되였다.

이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이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나눈 편리한 지역경계에 의거하여 도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도의 장관으로는 관찰사(감사)가 있었다.

도밑에는 고을들이 있었다. 고을은 크기와 등급에 따라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불리웠다.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감 또는 현령이라는 고을원이 있었다.

고을의 우두머리는 그 고을의 등급에 따라 이름이 달랐지만 통털어 원 또는 사또라고 불렀다.

관찰사와 원들은 국왕으로부터 각각 그 지방을 통치하며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받았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전세, 공물, 부역, 병역 등을 들씌워 가혹하게 착취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호화롭게 살았다.

4. 군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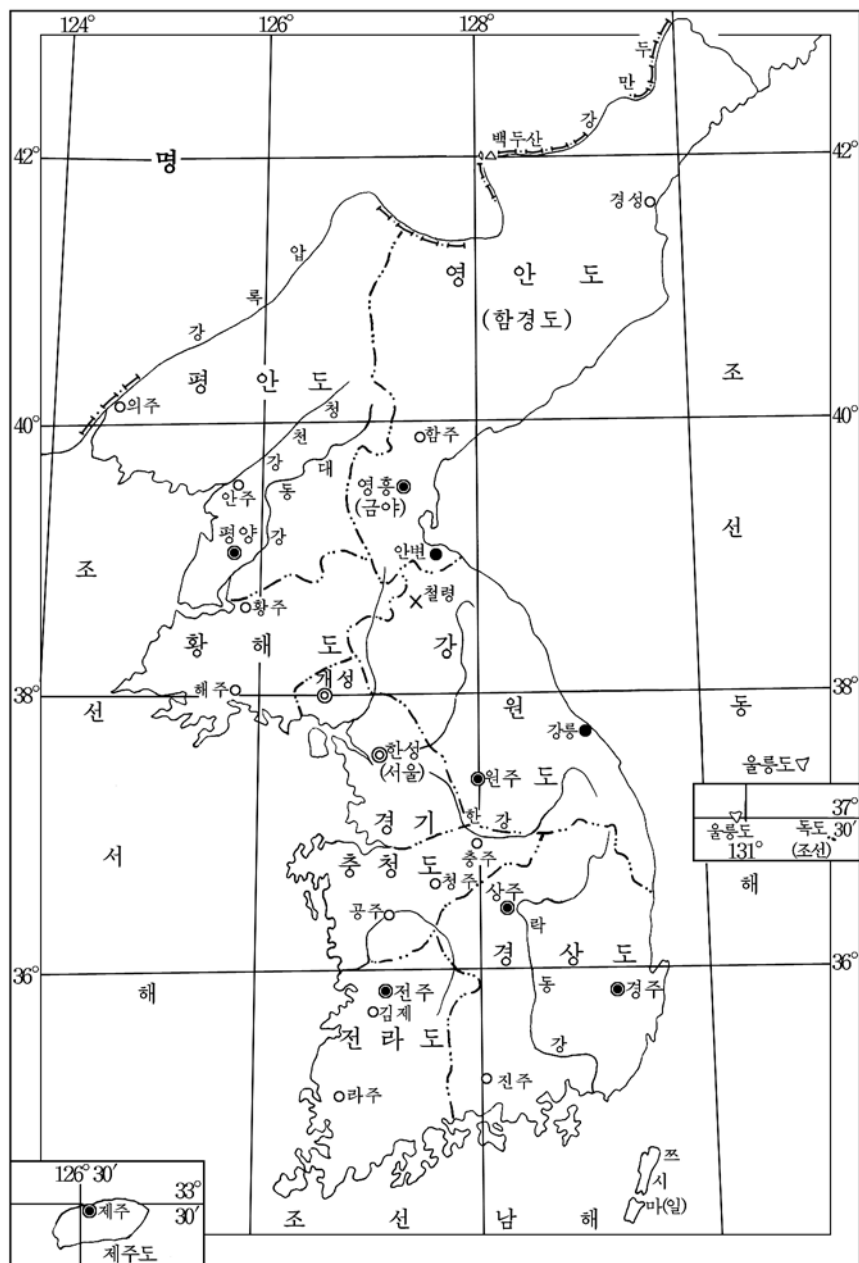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봉건국가와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제도를 강화하였다.

리조시기에는 모든 량인남자들이 16살부터 60살까지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여야 하였다.

량인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복무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것이였다. 그것은 군대복무기간에 필요한 식량, 의복 등 일체 비용을 자체로 마련하여야 하였으며 군대에 나가서는 군대복무뿐아니라 봉건국가가 강요하는 왕궁건설, 성쌓기 등의 어려운 공사에 동원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되여있었다.

중앙군은 군단이라고 할수 있는 5개의 위로 조직되였다. 5위를 통솔하는 기관으로 5위도총부가 있었다. 5위는 주로 왕궁호위와 수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방군에는 륙군과 수군이 있었다.

15세기 우리 나라의 8도

지방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매개 도에 1～3명의 병마절도사를, 수군에는 수군절도사를 임명하여 내려보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모두 량반출신들만이 될수 있었다.

5. 신분제도와 호패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나쁜 사람의 종자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고 나쁜 종자가 있다는것은 지난날 지배계급들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나쁜 종자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귀한 신분(지배계급신분)과 천한 신분(피지배계급신분)이 있으며 천한 신분은 귀한 신분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였다.

리조시기 지배계급의 신분에는 량반, 중인, 아전 등이 있었다.

량반은 지배계급의 신분가운데서 제일 높은 신분층이였다. 량반의 신분은 대대로 자손들에게 넘겨졌다.

량반들은 거의 대부분이 봉건지주들이였다.

량반들은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낮은 신분의 인민들을 억압착취하였다.

이 시기 권력을 잡은 량반관리들은 봉건국가로부터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많은 토지를 넘겨받았을뿐아니라 농민들의 토지를 마구 빼앗아 저들의 토지를 계속 늘이였다. 그것은 높은 관리였던 류자광의 땅이 서울에서 남원에 이르는 전 구간에 널려있어 그가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서도 서울에서 남원까지 갈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량반은 수십, 수백명이나 되는 많은 노비도 가지고있으면서 그들에게 잡다한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켰다.

량반은 봉건국가로부터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량반지배층들은 땅과 노비, 벼슬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지배계급신분에는 다음으로 중인이 있었다.

중인은 량반 다음가는 신분층으로서 주로 외국어, 법률, 의학, 지

리학, 천문력서 등 여러 부문의 기술분야벼슬을 맡아보았다.

중인은 지배계급에 속하고있었으나 량반들보다는 낮은 신분이였다. 그러나 중인들가운데는 통역관과 같이 사신을 따라다니면서 외국과의 무역을 진행하여 큰 부자로 된자들도 있었다.

지배계급의 신분에는 또한 아전들도 있었다.

이들을 서리라고도 불렀다.

아전은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사무를 맡아보는자들인데 지배계급의 신분가운데서 제일 낮은 신분층이였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지위는 낮았으나 봉건국가와 통치배들의 앞잡이가 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직접 감행하였다.

리조시기 피지배계급의 신분에는 크게 량인과 천인이 있었다.

량인이란 봉건국가에 얽매여 전세, 공물, 부역, 병역 등의 착취를 당하는 신분층을 말한다.

량인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속하였다.

그가운데서 농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량인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제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반농민들이였다.

이와 함께 제 땅이 없기때문에 지주들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민도 많았다.

소작농민들은 일반농민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량인으로서 봉건국가의 착취를 당하는 동시에 땅을 얻어부치는 대가로 지주에게 수확의 절반이상을 소작료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수공업자와 상인들은 량인이면서도 농민들보다 천한 일을 한다고 하여 천대를 받았다. 특히 짐승을 잡는 백정, 무당이나 기생 등은 신분적으로 보면 량인에 속하나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하여 더욱 멸시되였다.

피지배계급의 신분에는 또한 천인이 있었다.

천인은 피지배계급의 신분가운데서도 제일 낮은 신분으로서 여기에는 노비가 속하였다.

노비는 크게 국가관청에 속해있는 공노비와 개별적인 량반지주들에게 속해있는 사노비로 나누었다.

노비는 량반들의 일하는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

말아하였으며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였다. 만일 조금이라도 주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큰 몽둥이로 얻어맞았으며 때로는 참혹한 형벌을 받아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다.

노비들은 물건처럼 팔리기도 하고 자기의 천한 신분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넘겨주어야 하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이란 16살로부터 60살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관청의 도장이 찍힌 호패(주민증 같은 패쪽)를 차고다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결국 호패법은 봉건국가가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며 특히 인민들이 자기 고장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게 얽매여놓고 착취하기 위한것이였다.

높은 량반관리들은 짐승뿔이나 결이 고운 나무로 호패를 만들고 거기에 벼슬과 이름만을 새겨넣었다. 그러나 피지배신분인민들은 보통나무로 만든 패쪽에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뿐아니라 얼굴의 생김새까지 새겨넣도록 하였고 노비의 경우에는 누구의 노비라는것까지 새겨넣었다.

호패는 량반관리들에게는 명예와 특권의 표식으로 되였지만 피지배계급인민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신분적예속의 표식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호패법을 실시함으로써 봉건정부는 그전에 호적(주민대장)에서 빠져있던 많은 인민들을 틀어쥐게 되였다. 그것은 호패법이 실시되기 전에 호적에 등록된 16살이상의 량인남자수가 32만명이였다면 호패법이 실시된 이후인 15세기 30년대에는 70여만명으로 늘어난것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봉건정부는 호패법을 통하여 수십만명의 량인장정들을 호적에 등록해놓음으로써 그들을 어느때든지 군대와 부역로동에 끌어낼수 있게 되였다.

6. 봉건적착취형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세제도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온 하나의 착취제도입니다.》

15세기 봉건적착취의 기본형태는 전세와 공물, 부역이였다.

전세란 봉건국가가 농민들에게서 받아내는 논밭세를 말한다.

리조시기 법에 의하면 전세는 토지면적에 따라 가을에 수확한 곡식 가운데서 10분의 1을 바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갖은 협잡을 다하여 전세량을 제멋대로 불구고 또 여러가지 세를 덧붙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곡식을 깡그리 빼앗아냈다.

공물은 국가관청들에서 쓸 지방특산물들을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내는것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이 바쳐야 할 공물품종을 무명, 명주, 베, 쇠붙이, 종이, 목재, 수산물, 짐승가죽, 약재, 과실 등 무려 200~300여가지로 정하여놓고 그것을 제날자에 바치지 못하면 가혹한 벌금을 들씌웠다. 봉건관리들은 공물을 받을 때 물품이 나쁘다는 트집을 걸어 퇴짜를 놓고는 많은 뢰물을 받은 다음에야 받군하였다.

특히 공물착취가 인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된것은 자기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하기 매우 힘든 물품들을 바쳐야 하였기때문이다.

이 시기 인민들속에서는 양덕맹산어물공이란 말이 떠돌았다. 이것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깊은 산골인 양덕, 맹산에까지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공물로 부과된데로부터 생겨난 말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부득불 비싼 값으로 그런 물건을 사서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부역은 봉건국가가 16~60살까지의 모든 량인남자들에게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여러가지 로동에 의무적으로 끌어내는 강제적로동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 농사철에까지 농민들을 부역에 마구 끌어냈으며 식량과 로동도구까지 자체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역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로동은 성쌓기와 광석캐기, 짐나르기, 배무이 등이였다.

이와 같이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전세, 공물, 부역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으며 인민들은 이로 인하여 항상 헐벗고 굶주리면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리조 전 기간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제2절. 15세기 경제의 발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킵니다.》

15세기에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고 상업과 대외무역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 농업의 발전

무엇보다 부침땅면적이 늘어났다.

15세기에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전라도의 해안지방과 황해도 재령강상류의 벌방지대들에서는 묵은 땅이 개간되고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의 산골지대들에서도 황무지를 많이 개간하였다. 그리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는 부침땅면적이 계속 늘어났다.

한편 농민들은 저수지를 보수하거나 새로 많이 만들어 논과 밭에 더 많은 물을 댈수 있게 하였다. 농민들은 세나라시기에 건설된 이름난 저수지인 전라도 김제의 벽골제제방을 더 든든히 쌓고 많은 물을 채웠으며 충청도, 황해도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큰 저수지만 하여도 40여개나 만들었다.

농업기술도 발전하였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2모작의 도입, 모내기법의 확대, 새 품종의 육종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농민들은 오랜 농사경험을 쌓고 연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한해에 농사를 두번하는 2모작을 널리 진행하게 되였다.

3～6월 중순경에 보리를 심고 가을한 다음에는 콩이나 팥, 조를 엇바꾸어심기도 하였다.

벼농사에서는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였다.

모내기는 이전에 논밭에 직접 벼종자를 뿌려 가꾸던 농사법과는 달리 그보다 몇배의 수확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벼농사방법이였다.

모내기는 15세기에 경상도, 전라도의 남쪽 지방은 물론 황해도와

중부이남지역에까지 널리 도입되였다.

이 시기에 새로운 곡식종자를 얻어내고 널리 보급하는데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벼종자만 하여도 27종이나 되였으며 조는 15종, 콩은 20종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곡식품종들이 나오게 되였다. 그가운데서도 벼종자인 《50일벼》와 큰 기장종자인 《거서》가 유명하였다.

《50일벼》는 씨를 뿌려 50일이면 걷어들일수 있고 가물에 잘 견디는 벼종자인데 2모작을 하는데 아주 적합하였다.

《거서》는 황해도 옹진지방에서 농사를 짓고있던 리철이라는 농민이 1421년에 발견한 종자였다. 《거서》란 큰 기장이라는 말이다.

다른 농민들과는 달리 기장농사를 하던 리철농민은 자기 밭에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다가 다른 곡식에 비하여 한대에 이삭이 2개씩이나 달리고 기장알도 몇배나 큰 새로운 종자를 발견하게 되였다. 그는 2년동안 그 종자를 시험재배하여 많은 거서종자를 얻게 되였다. 그는 이웃농민들에게 거서종자를 나누어주고 심고 가꾸는 방법도 알려주어 마침내는 거서가 온 나라에 퍼지게 하였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공예작물과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공예작물로는 천원료인 목화, 삼, 모시풀, 뽕나무 등이 많이 재배되였다.

이미 고려말부터 우리 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목화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15세기에는 함경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심게 되였다. 이때에 목화의 명산지들이 생겨나게 되였는데 그러한 지역들로는 경상도의 안동, 의성, 례천, 충청도의 림천, 보령, 전라도의 전주 등을 들수 있다.

삼은 처음에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심었는데 남쪽지방에 목화가 널리 재배되면서부터 주산지가 점차 나라의 북부지방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삼의 생산지는 길주, 명천을 비롯한 오늘의 함경북도지역이였다.

모시풀은 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많이 생산되였다. 그 명산지는 충청도의 한산, 림천, 서천, 비인, 람포, 홍산, 정산 등이였다.

이와 함께 뽕나무, 왕골, 옻나무, 닥나무도 많이 심었다.

15세기에 과일나무도 많이 재배되였다.

제주도에서는 특히 귤이 많이 생산되였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들은 모두 통치배들에게 빼앗겼기때문에 인민들은 여전히 사철 굶주림속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2. 수공업의 발전

15세기 수공업의 발전모습은 농민들의 가내수공업, 전업적인 개인수공업, 봉건국가가 운영하는 관청수공업에서 각각 찾아볼수 있다.

우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가내수공업에서는 주로 무명, 베, 명주 등의 옷감과 왕골로 결은 돗자리, 나무와 참대로 만든 일용품과 그릇들이 생산되였다. 이 시기 무명은 경상도와 전라도지방, 베는 함경도, 명주는 함경도와 평안도, 모시는 충청도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였다.

농민들은 생산한 수공업제품들을 대부분 자기 집에서 소비하였으며 일부를 공물로 바치거나 시장에 가지고나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꾸었다.

전업적개인수공업도 더욱 발전하였다.

수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수공업자들은 농민들이 가내수공업에서 만들수 없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을 만들었다. 전업적개인수공업자들은 농기구, 쇠가마, 놋그릇, 사기그릇, 종이, 붓, 먹, 돗자리, 장농 등을 만들었다. 그가운데서 제일 우수한것은 종이, 붓, 먹, 벼루 등을 비롯한 문방구였다.

고급종이들은 전라도의 전주와 남원에서 많이 생산되였으며 먹은 충청도 단양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 제품들은 그 질이 좋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청수공업도 발전하였다.

봉건국가에서 경영하던 관청수공업은 수공업에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관청수공업장들에서는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온 많은 개인수공업자들과 공노비들이 일하고있었다. 그들은 수공업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여러 업종별로 갈라지고 그안에서 다시 생산물에 따라 나누어져서 일하였다.

15세기에 30개의 중앙수공업관청에 속한 수공업장들에서는 129개의 업종에서 2 800여명의 수공업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책을 인쇄하는 수공업장을 보면 여기서는 146명이 업종별로 갈라져서 일하였다. 먼저 한사람이 나무를 다듬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글자를 새겨 나무활자를 만들고 개흙판에 찍어 주형을 만든다. 이때 다른 사람이 연, 구리를 녹여 주형에 부어 활자를 만들면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다듬어서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한사람이 활자를 맞추어 문장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판을 짜고 인쇄하게 되여있었다.

이 시기 관청수공업에서는 대포, 화약, 창, 칼 등의 무기류와 금속활자, 도자기, 고급옷감, 종이, 치레거리 등을 생산하는 부문이 특히 발전하였다.

수공업자들은 그 신분이 량인이건, 노비이건 관계없이 농민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매우 천시되였다.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수공업자들이 만든 물건들을 빼앗아쓰고 입고살면서도 그들을 쟁이라고 부르면서 천대하였다. 그러므로 봉건사회에서 수공업자들은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할수 없었다.

3. 상업과 대외무역의 발전

농업과 수공업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업과 대외무역도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서울과 평양, 개성과 같은 주요도시들에서 상업이 발전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을 천한것으로 여기면서도 저들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상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저들이 지정한 몇명의 상인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건들

을 눅은 값으로 대게 하고 그 대가로 쌀, 소, 말, 소금과 같은 중요한 물품들을 독차지하고 사고팔수 있게 하는 특권을 주는것이였다. 만일 이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팔 때에는 강제로 빼앗아내군 하였다.

봉건국가의 비호를 받은 상인들은 대체로 서울, 평양, 개성에 큰 상점을 차려놓고 통치배들의 사치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들을 보장하였다.

도시들에는 또한 자그마한 상점인 점포도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소상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상인들에게 억눌려 마음대로 장사할수 없었으며 밑천도 보잘것 없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물건을 짊어지고 도시주변과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보짐장사군도 있었다.

그밖에 큰 배를 가지고 쌀, 고기, 나무 등의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큰 배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쌀을 사들인 다음 도시로 와서 비싼 값으로 팔아 많은 리득을 얻었다. 그들의 쌀장사가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은 이 시기 서울, 평양, 개성의 쌀값이 이들에 의해 좌우지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던 경강상인, 류상, 송상들은 바로 서울과 평양, 개성의 상인들을 가리켜 부른 말이였다.

15세기 상업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전라도에서 발생한 지방시장이 널리 보급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라는것이 생겨났습니다.》

장은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수공업제품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더욱 늘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을 쌀과 같은 농산물과 교환해야 살아갈수 있었다.

한편 농민들도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옷감과 쇠가마, 농기구, 종이 등을 살수 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수

공업자들과 농민들은 점차 며칠에 한번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기들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때 그들이 모여 물품을 교환하는 장소를 장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사람들은 보름에 한번씩 즉 매달 두번씩 모여 장을 보았는데 이 장은 전라도지방에서 제일먼저 생겨나서 그후 나라의 곳곳에 퍼지게 되였다.

15세기에는 국내상업과 함께 대외무역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 무역은 우리 나라 주변에 있던 명나라, 녀진, 일본 등과 많이 하였다.

명나라와의 무역은 해마다 오고가는 사신단을 통하여 많이 진행되였다. 이때 명나라에 수출한 물품들은 베, 모시, 꽃방석, 표범가죽, 고급종이, 잣, 오미자, 인삼, 붓, 먹 등이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은 여러가지 책과 약재, 향료, 고급사기그릇과 고급비단 등이였다.

녀진과의 무역은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녀진인들은 해마다 자기 지방의 특산물인 말과 표범, 곰 등의 짐승가죽과 꿩을 잡는 매를 가지고와서 리조봉건정부에 바치고 그대신에 무명, 베, 모시, 농기구, 종이 등의 수공업품과 쌀, 소금 등의 식료품을 받아갔다.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일본상인들은 경상도의 부산포와 냉이포, 염포에 와서 살면서 무역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일본에서 들여온 물품은 동, 류황 그밖의 남방향료와 물감 등이였고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은 무명, 모시, 꽃방석, 범가죽, 인삼, 오미자 등이였다.

이 시기 리조봉건정부가 수입한 무역품들은 모두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필요한것이였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수출한 물품들이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쌀, 천 등이였으므로 인민들의 경제생활에는 일정한 부담으로 되였다.

제3절. 4군6진의 설치와 쯔시마원정

1. 4군6진의 설치

4군6진은 15세기에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설치된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말한다.

4군6진이 설치되기 전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정세는 녀진인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녀진인들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압록강과 두만강일대에서 살고있었는데 자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침범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마구 략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가군 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처음에 될수록 그들을 얼리는 정책을 써왔다.

잘 복종하는 녀진인들에게는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도록 하였고 생활조건도 보장해주었으며 그 우두머리에게는 일정한 벼슬도 주었다. 그들이 특산물을 가지고왔을 때에는 그 물건값의 몇배나 되는 물품을 주어보내군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순종하지 않는 녀진인들은 자주 북부국경지대에 기여들어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녀진인들의 략탈행위가 심해지자 우리 인민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인민들은 자체로 마을을 지켜 침입하는 녀진인들을 맞받아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적들의 소굴을 쳐부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봉건정부에 녀진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략탈행위를 끝장낼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리조봉건정부는 원정군을 조직하여 1433년과 1437년 두차례에 걸쳐 녀진인들의 소굴을 쳐부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녀진인들의 침입을 끝장낼수 없었다.

녀진인들은 조선군대가 공격하면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났다가도 조선군대가 철수하면 뒤쫓아와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감행하군 하였다.

그런데 녀진인들의 침입을 제일먼저 막아야 할 우리 나라 북방의

이 지역들은 그곳을 관할하는 관청들이 멀리 떨어져있었으며 방비시설도 약하였다.

녀진인들의 침입을 완전히 막자면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의 중요한 곳들에 새로운 군, 현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고 군사요새지들을 건설하여 녀진인들이 함부로 기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녀진인들의 침략을 막을뿐아니라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리조봉건정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의 중요한 곳들에 새로운 군과 진을 설치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1416～1443년사이에는 오늘의 자강도 북쪽과 량강도 서북지방에 려연군(김형직군 금창리 고성동), 우예군(중강군), 자성군, 무창군(김형직군) 등 4개의 새 고을이 설치되였다.

압록강중류지방에 새로 설치된 려연, 우예, 자성, 무창 등 4개의 고을을 4군이라고 한다.

4군은 행정중심지이면서도 군사적중심지이기도 하였다.

4군의 설치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두만강류역의 국경지대에는 6진이 새로 설치되였다.

6진은 먼저 4개의 진을 설치하고 그후에 2개의 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였다.

1434～1435년경에 경원, 회령, 종성(온성군), 경흥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4진이라고 불렀다. 그후 종성북쪽에 온성을, 청진부근에 부령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본래 있던 경원, 회령, 종성, 경흥 등의 4진에다가 온성, 부령까지 합쳐 6개의 고을을 6진이라고 불렀다.

리조봉건정부는 4군6진을 새로 설치한 다음 이 지역에 성을 쌓고 보(경비초소)를 설치하였으며 군대를 배치하여 국경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다른 한편 남쪽지역의 많은 인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에 4군6진이 설치되고 인민들이 그곳에 많이 살게 됨으로써 북쪽으로부터 기여드는 녀진의 침입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 지방으로 진출한 우리 인민들은 국경경비를 맡아보면서 새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음으로써 나라의 정세는 안정되고 알곡생산을 더욱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 1419년 쯔시마원정

1419년 조선수군의 쯔시마공격은 우리 나라의 서남해안에 침략해 오던 흉악한 원쑤 왜구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리조정부가 이해에 수군을 동원하여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나라의 남쪽지방에 대한 왜구의 침략행위가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데 있었다.

이미 13세기초부터 우리 나라 연해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일본해적무리들인 왜구는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안으로 수십차례 기여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랍치하며 그들의 살림집까지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심지어 일본봉건령주들과 장사군들은 리조봉건정부가 무역을 할것을 허락해주자 그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군사비밀을 탐지하거나 왜구들과 짜고들어 해적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왜구를 징벌하는 문제는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왜구를 징벌하기 위하여 특히 수군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수군의 인원수를 늘이고 함선을 만드는 일을 다그쳤으며 화약무기를 계속 발전시켜 기술장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15세기초에 우리 나라 수군의 총 수는 거의 5만명에 이르렀고 함선의 총 수도 600여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방비를 강화할뿐아니라 침략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벌을 가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1419년 5월 50여척의 배에 나누어탄 일본해적들이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에 기여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해 5월 5일에 일본해적들은 안개자욱한 도두음곶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어 우리 나라 함선에 불을 지르고 륙지에 기여올라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때 우리 군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싸워 마침내 적들을 물리쳤다.

이곳에서 침략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본해적들은 며칠 후 또다시 해주 연평곶에 기여들었다.

리조봉건정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드디여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할것을 결심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이때에도 우리 인민들은 왜구를 격멸하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시일안에 1만 7 285명의 수군병력과 227척의 함선으로 이루어진 조선함대가 조직되게 되였다.

또한 쯔시마를 불의에 들이치기 위하여 오가는 일본인들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 군사비밀을 보장하였다.

1419년 6월 19일 조선함대는 리종무의 지휘밑에 거제도를 떠나 쯔시마로 향하였다. 그 다음날에 조선함대가 쯔시마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부두에서는 쯔시마의 해적들이 길게 늘어서서 바라보고있었다.

적들은 략탈하러갔던 자기편이 돌아오는줄 알고있었던것이다.

조선함대가 불의에 적들을 타격하자 넋을 잃은 해적들은 뿔뿔이 도망쳤다.

첫 기습작전에서 성공한 조선원정군은 사람을 보내여 쯔시마령주에게 항복할것을 요구하였다.

적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조선원정군은 포구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려 적들의 배 124척을 불살라버리고 34척을 로획하였으며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거나 포로하였다.

조선군대에 의하여 된매를 얻어맞은 쯔시마령주는 마침내 항복하고야말았다.

령주는 우리 나라에 대한 해적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것과 조선에 잘 복종하겠다는것을 맹세하면서 군대를 철수시켜줄것을 애걸하였다.

적들의 항복을 받은 조선원정군은 승리의 기세드높이 쯔시마를 떠나 7월 3일에 거제도로 돌아왔다.

조선수군의 쯔시마공격으로 치명적타격을 받은 적들은 그후 100여년동안이나 감히 우리 나라에 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제4절.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15세기에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함경도지방에서 제일 크게 일어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경도지방인민들은 다른 지방의 인민들보다 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왔다.

이 지방인민들은 국경경비와 성쌓기부역에 자주 끌려나갔으며 서울로 오가는 녀진인들의 시중까지 들어야 하였다. 여기에다가 날씨가 차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까지 잘되지 않다보니 인민들의 생활처지가 매우 비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이 지방 인민들을 더욱 악착하게 착취하면서 신세포라는 특수한 세까지 들씌웠다. 신세포는 원래 무당들한데서 받아내는 베천이였는데 통치배들은 그것을 무당이 아닌 인민들에게까지 들씌워 마구 빼앗아냈다.

그리하여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기세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였다.

이 시기 인민들의 반항기세를 리용하여 그들을 투쟁에 궐기시킨 사람은 길주지방의 토호출신인 리시애였다.

리시애는 비밀리에 자기 동료들을 만나 반란을 일으킬것을 토의하고 그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그들은 먼저 사방을 돌아다니며 리조봉건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함경도에 쳐들어와 인민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 헛소문은 삽시에 널리 퍼져 함경도인민들을 크게 격분시켰다.

리시애는 폭동지휘부를 조직하고 폭동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들도 충분히 마련하였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리시애는 1467년 5월 10일 길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밤에 동료들과 함께 봉건정부가 파견한 함경도 절도사 강효문을 비롯한 여러명의 관리들을 습격처단한 다음 련이어 길주고을

을 단숨에 점령하였다. 여기에 함경도 각지의 농민들이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폭동은 함경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쓴 큰 규모의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였다.

농민군은 단천, 홍원, 함흥을 비롯한 도처에서 관청을 까부시고 서울에서 파견되여온 수많은 관리들을 모조리 쳐죽이였다.

이와 같이 농민군은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며칠사이에 고원이북 함경도의 전 지역에서 봉건통치를 마비시켰다. 이때 각지의 농민들이 폭동군에 들어옴으로써 농민군대렬은 2만명이상으로 늘어났다.

바빠맞은 봉건통치배들은 황급히 3만여명의 토벌군을 조직하여 함경도에로 내몰았다. 토벌군은 5월말에 함흥에 도착하였으나 농민군이 무서워 감히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월 하순경에야 북청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농민군과 토벌군과의 첫 큰 싸움이 북청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농민군은 먼저 성으로 흘러드는 강웃쪽을 막아 성밖에 파놓은 물도랑에 물이 고이지 못하게 하고 성가까이에 접근하였다.

6월 25일 새벽에 농민군은 성안에 불덩어리를 던지고 불화살을 쏘아 토벌군진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세면으로 성을 공격하였다.

10여차례나 돌격하면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혼쌀이 난 토벌군은 홍원을 거쳐 함흥쪽으로 달아났다.

토벌군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한 농민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만일 그 기세로 함흥을 점령하고 계속 진격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수도 있었다.

그러나 농민군 지휘자 리시애는 적들과 흥정판을 벌리면서 더 진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민군의 일부를 북청에 남겨두고 자신은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리원쪽으로 물러섰다.

그사이에 병력을 보충한 토벌군은 7월 하순에 다시 북청으로 공격해왔다.

이 위급한 시각에 농민군의 지휘성원들은 안일해이되여 아무런 방어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

하고 토벌군에게 몰리워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적들은 계속 농민군을 추격해왔다.

북청에서 후퇴한 농민군부대와 리시애의 주력부대는 만령에서 진을 치고 적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만령은 북청에서 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동남쪽으로 바다를 끼고있었다. 만령전투는 농민전쟁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중요한 전투였다.

8월 4일 토벌군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5개의 방향에서 농민군을 공격해왔다.

농민군은 토벌군에게 불벼락을 안기면서 완강하게 방어하였다. 그들은 대포와 활을 쏘고 돌을 굴리면서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민군들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무기도 부족하였다. 적들은 계속 력량을 보충해가며 개미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른 저녁 토벌군의 한 부대가 바다쪽으로 에돌아 농민군을 뒤로부터 불의에 공격해왔다.

앞뒤로부터 공격을 받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농민군은 할수없이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였다.

여러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자 농민군지휘층안에서는 변절자들이 나타났다. 변절자들은 리시애를 붙잡아가지고 토벌군에게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함경도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함경도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우선 농민들이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되는것이 개별적악질관리들의 횡포성에 있는것으로만 생각하고 봉건제도자체를 뒤집어엎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농민군지휘성원들이였던 토호들이 농민들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농민들처럼 용감하게 싸울수도 없었으며 어려울때에는 변절까지 하여 결국 농민전쟁을 실패하게 하였다.

함경도농민전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농민군에 의하여 된매를 맞은 봉건통치배들은 이 지방인민들에게 내려먹이던 신세포를 없애고 전세와 공물, 부역 등을 몇년간 면제해주지 않을수 없었다.

제2장. 임진조국전쟁,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제1절. 1592～1598년 임진조국전쟁

1. 전쟁의 시작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온 간악한 일본침략자들은 1592년 4월 20여만의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다.

이 시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자기들끼리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질만 하면서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첫 싸움은 부산에서 벌어졌다. 4월 13일 부산에 기여오른 침략군은 1만 8 000여명의 무력으로 부산성을 공격해왔다.

성을 지키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성에 의거하여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덤벼드는 적들의 공격을 맞받아 육박전을 벌리면서 굴함없이 싸우던 성안의 군대와 인민들은 모두 희생되였다.

부산성을 강점한 적들은 동래성으로 기여들었다.

동래성방위자들은 명나라를 침략하겠으니 길을 빌리자는 적들의 가증스러운 요구에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싸움에 떨쳐나섰다.

성안의 군대와 인민들은 부사 송상현의 지휘밑에 수십배나 되는 적들과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부산성과 동래성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적들에게 큰 공포를 주고 각지 인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동래성을 강점한 적들은 계속 북으로 기여들어 충주까지 강점하였다. 충주가 강점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저

들의 목숨만을 건지겠다고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나고말았다.

국왕은 도망쳤지만 평양에서는 애국적인민들로 방어군이 무어졌다. 약 4 000명으로 무어진 방어군의 지휘부는 련광정에 자리잡았다.

6월 11일 적들은 조총을 쏘아대면서 양각도쪽으로 강을 건너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평양인민들의 완강한 기세에 눌리워 감히 강을 건느지 못하였다.

이날 밤 평양방어군 100여명은 강을 건너가 습격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후 14일 새벽에도 모란봉의 부벽루밑 릉라도로부터 대동강을 건너가 습격전투를 벌렸다.

습격조는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고 철수하였으나 그만 적들에게 강을 건느는 여울목이 발견되게 하였다. 이때까지 방어군의 상태와 여울목을 몰라 대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던 침략군은 드디여 이날 저녁 그 여울목을 건너 평양성에 침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침략군은 일시적인 군사적우세를 리용하여 서쪽에서는 평양, 동쪽에서는 함경도지방까지 기여들수 있었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귀중한 문화유물을 마스거나 훔쳐갔다.

그러나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인민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바다와 륙지에서 적들을 무찌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2. 전쟁 첫 시기 바다에서의 커다란 승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순신장군은 약한 수군병력을 가지고도 전라도 물목을 지켜 왜적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한산도에서 일본수군을 전멸시키는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전쟁 첫 시기 바다에서는 리순신장군이 지휘한 우리 나라 수군이 1592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라도물목을 지켜 4차례나 출전하여 일본침략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리순신장군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거북선을 만들었으며 여러가지 대포와 무기들도 갖추고 훈련을 강화하여 바다우에서 적들을 물리칠 준비를 갖추었다.

원래 일본침략자들은 전쟁 첫 시기에 륙군을 기본으로 공격하면서

수만명의 수군으로는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에서 우리 수군을 쳐없애고 륙군과 함께 북으로 진격하여 전 조선을 단숨에 강점하려는 침략계획을 세웠다. 이때 경상도의 수군은 경상도우수사였던 원균을 비롯한 군사지휘관들의 비겁성으로 하여 적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고말았다. 그러나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있던 전라도수군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전투준비를 튼튼히 갖추었다.

일본수군과의 첫 전투는 1592년 5월 7일 거제도의 동쪽에 있는 옥포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이때 85척으로 무어진 조선함대는 경상도 앞바다로 나가다가 옥포 앞바다에서 적수군을 발견하였다.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있던 조선함대는 재빨리 적수군을 포위하고 해안으로 몰고들어가면서 포를 쏘고 불화살들을 퍼부어 적선을 까부셨다. 이 싸움에서 조선함대는 적함선 26척을 까부시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이 승리는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여 우리 인민이 거둔 첫 승리였다.

이 승리를 통하여 조선수군은 제노라고 뽐내는 일본해적들과 싸워 이길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곳곳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우리 함대는 5월 29일 또다시 출전하였다.

조선함대가 적을 추격하여 사천 앞바다에 이르자 적 400여명은 산우에 진을 치고있었고 선창에는 12척의 적선이 있었다.

그런데 썰물로 하여 포구의 수심이 얕아져서 큰 배가 들어갈수 없을뿐아니라 적이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있어서 지형상 우리에게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함대는 적을 넓은 바다에로 끌어내기 위하여 퇴각하는척 하였다.

적들은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공격해왔다. 이러한 때 밀물이 시작되였으므로 조선함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배머리를 돌려 적선을 향해 공격해들어갔다.

맨앞에 선 거북선이 포탄을 퍼부으면서 공격하고 뒤를 따라 다른 함선들이 적선을 향하여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리순신장군은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왼쪽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싸움을 지휘하였다.

이날 조선함대는 적선 12척을 까부시였다.

패배를 거듭한 적들은 저들의 수군을 모두 긁어모아 우리 수군을 쳐보려고 꾀하였다.

우리 수군은 1592년 7월 8일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적수군이 몰켜있는 경상도 앞바다로 향하였다.

리순신장군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이름난 한산도에서의 바다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한산도 앞바다 싸움에서 우리 함대는 적함선 59척을 까부시고 수천명의 적들을 바다속에 처넣었다.

이 한산도 앞바다 싸움에서의 승리를 한산대첩(한산대승리)이라고 한다.

그후 9월 1일 아침 170척으로 무어진 조선함대는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부산 앞바다로 쳐들어갔다. 이때 470여척의 적선이 부산항으로부터 동쪽산기슭사이에 늘어서있었다.

조선함대는 거북선을 선두로 하여 적함대가 집결되여있는 포구로 공격해갔다. 조선함대가 들이닥치자 적들은 총포와 화살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그러나 우리 수군은 대포와 화살을 쏘면서 적진을 뚫고들어가 적함선들을 모조리 까부시였다.

온종일 벌어진 싸움에서 우리 수군은 적함선 100여척을 물속에 처넣고 수많은 적들을 죽이였다. 이 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부산대첩(부산대승리)이라고 한다.

조선남해에서 우리 수군의 빛나는 승리는 전쟁형편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려세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수군이 승리함으로써 륙군과 수군이 힘을 합쳐 전 조선을 강점하려던 적들의 침략계획이 파탄되였으며 싸우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적의 수군은 한산도와 부산 앞바다싸움에서 되게 얻어맞은 다음부

터 바다에서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였으며 적의 륙군도 북쪽으로 더이상 기여들수 없게 되였다.

3. 각지 의병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곽재우를 비롯한 애국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왜적을 격멸하였습니다. 농민들과 하급관리, 심지어 산중에 은거하는 중들도 의병을 일으켰고 녀성들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적을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의병은 봉건국가에서 조직한 정부군과는 달리 애국적인 인민들이 자체로 무장하고 일어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군대였다. 의병에는 농민들이 주력을 이루었고 그밖에 하급관리와 중들 그리고 녀성들도 있었다.

의병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기여들기 시작한 경상도 지방에서부터 일어났다.

1592년 4월 경상도 의령에서는 곽재우의 지휘밑에 1 0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로 의병부대가 무어졌다.

곽재우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기때문에 그를 홍의장군이라고 하였다.

곽재우의병부대는 이해 6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통하는 주요길목인 솥나루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 전투에서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홍의장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한다.

솥나루전투의 소식을 들은 각지 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의병부대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수천명의 큰 부대로 자라난 곽재우의병부대는 투쟁을 더 세차게 벌려 락동강동쪽의 적들을 쳐부시고 여러 고을들을 되찾았다.

경상우도의 중심지였던 진주에서도 의병들의 용감한 투쟁이 벌어졌다.

10월초에 적들이 3만여명의 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자 그 주변에서 싸우던 의병부대들이 성안의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의 투쟁을 지원하려 달려왔다. 의병들은 성을 포위한 적들을 다시 밖으로 포위하고 놈들에게 련속 타격을 안기였다.

적들은 성밖에서 공격하는 의병들을 막기 위하여 성안에 불을 지르

고 흙산을 쌓는 한편 참대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기여오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안팎의 방위자들과 의병들은 용감히 싸워 적들의 공격을 끝까지 물리쳤다.

5일동안 치렬하게 벌어진 싸움에서 호되게 얻어맞은 적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남기고 부산쪽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이 진주성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력사에서는 진주대첩(진주대승리)이라고 한다.

경상도지방에서뿐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와 황해도, 함경도등 여러 지방들에서도 애국적인민들이 의병부대를 무어가지고 용감히 싸웠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일대에서 의병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평양주변에서는 림중량, 서산대사 등이 지휘하는 의병부대를 비롯하여 여러 의병부대들이 활동하고있었다.

그중 서산대사는 묘향산 보현사의 중으로서 73살의 늙은 몸으로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나선 애국적인 의병대장이였다.

남달리 애국심이 강한 그는 사랑하는 조국강토가 무지막지한 왜적들에게 짓밟히는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서산대사는 분연히 자리를 차고일어나 장검을 비껴들고 전국의 중들에게 격문을 보내였다.

그는 격문에서 《늙고 병들어 싸울수 없는자는 모두 절간에 남아서 조국수호와 왜적격멸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며 싸울수 있는 장정은 모두 무기를 들고 의병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앞장서서 순안에서 1 500여명의 중들로 의병을 무었다.

서산대사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국각지의 중들이 의병투쟁에 나섰다.

금강산에서 사명당이 700여명의 중들로 의병대를 뭇고 평양으로 올라와 서산대사가 이끄는 의병부대에 합세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 중의병들의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서산대사는 전국 8도의 중들을 총지휘하는 대장으로 되고 사명당은 부대장으로 되였다.

서산대사는 중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주로 평양성주변에서 활동하면서 평양성에 도사리고있는 일본침략군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들이대여 적들이 평양성밖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산대사의병대의 용감한 활동은 평양성해방전투에서 크게 발휘되였다.

4. 평양성해방전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1593년초부터 일본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면적인 총공세로 넘어갔다.

당시 평양에는 일본침략군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1만 5 000명의 고니시부대가 둥지를 틀고있었다.

평양성해방전투에는 김응서 등이 지휘하는 1만 5 000명의 관군과 서산대사 등이 지휘하는 2만여명의 의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왜적들의 명나라침략을 미리막기 위하여 온 명나라군대도 참가하였다.

이때 김응서장군은 평양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함구문, 보통문부근에 가기도 하고 성안에 남아있던 애국녀성 계월향을 통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정찰하였다. 그리고 전투를 하기에 앞서 계월향의 도움으로 성안으로 들어가 적장을 처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김응서는 먼저 총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로 결심하였다.

1월 6일 새벽 우리 군대는 일제히 모란봉과 보통문, 함구문의 세 방향에서 적을 공격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서산대사는 중의병부대를 거느리고 모란봉의 적을 유인하여 소멸하였다. 그리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우리 군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다음날에는 김응서부대가 성의 서쪽과 남쪽방향에서 적을 공격하였다.

적들이 성벽에 의거하여 발악적으로 맞서자 우리 군대는 물러서는 것처럼 하면서 원쑤들을 성밖의 벌판으로 끌어내여 소멸하였다.

서산대사가 지휘하는 의병부대는 모란봉의 적진을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우리 군대가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게 하였다.

1월 8일 새벽에 드디여 관군은 의병부대와 협동하여 평양성해방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먼저 여러문의 대포로 포탄을 퍼부어 성안의 적들을 불바다속에 몰아넣은 다음 함구문, 보통문, 모란봉과 칠성문 네 방향에서 동시에 성안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김응서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제일 앞장에서 적들을 쓸어눕히며 돌격해들어가 적들의 제1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성안의 인민들도 적들의 움직임을 자주 알려왔으며 곳곳에서 원쑤들의 화약창고에 불을 지르거나 적들과 맞서싸우기도 하였다.

적들은 우리 군대의 맹렬한 공격에 몰리여 제2방어선으로 쫓겨갔다.

여기서 적들은 우리 군대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였으나 우리 군대는 계속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제2방어선을 넘어선 다음 적들을 경상골과 대동문부근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우리 군대의 총탄과 창칼에 맞아 적들의 시체는 여기저기에 산더미같이 쌓였다.

바빠맞은 적들은 련광정일대에 들어박혀 발악적으로 맞서나섰다.

우리 군대의 드센 공격앞에 혼쌀이 난 적들은 날이 어둡자 패잔병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이리하여 적들의 강점으로부터 평양성이 해방되였다.

평양성싸움에서 우리 군대는 1만여명의 적들을 죽이고 3 000여필의 말과 수많은 무기들을 빼앗았다.

평양성싸움에서 승리한 다음 우리 군대는 모든 전선에 걸쳐 적들에 대한 총공격에로 넘어갔다. 결국 황해도와 함경도지역에 있던 적들은 그해 2월말에 서울로 도망쳤다.

우리 군대는 계속 남으로 진격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적들을 족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때 적들은 행주산성에 있는 의병을 먼저 쳐없앰으로써 서울을 계속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2월에 3만명의 침략군으로 행주산성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권률장군의 지휘밑에 군대와 인민들은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때 우리 녀성들도 모두 떨쳐나서 앞치마에 돌을 담아 싸우는 군인들에게 날라다줌으로써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행주산성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력사에서는 행주대첩(행주대승리)이라고 한다.

행주산성전투후 적들은 우리 군대와 의병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의하여 곳곳에서 얻어맞고 4월 중순에는 남쪽으로 달아나 조선남해안 경상도의 좁은 지역에 몰켜 살구멍을 찾고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교활하게도 담판을 들고나오면서 숨을 돌려 다시 침략할 틈을 노리였다.

5. 로량바다싸움에서의 승리

담판의 막뒤에서 침략준비를 갖춘 일본침략자들은 1597년 1월 14만 1 500여명의 무력으로 우리 나라에 두번째로 침략하여왔다.

적들은 일시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9월에는 벌써 충청도에까지 기여들었지만 도처에서 우리 인민과 군대에 의해 호되게 얻어맞고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1597년 9월초 직산(충청남도 천안부근)에서 우리 군대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이 이 전투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바다에로 기여들자 리순신장군은 조선함대를 이끌고 또다시 출전하여 명량바다싸움을 벌렸다.

울돌(명량)목은 적수군이 조선서해를 거쳐 기여들 때 반드시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좁은 바다길목이였다.

이 싸움에서 12척으로 무어진 조선함대는 330여척의 적함대와 용감히 싸워 세계해전력사에 널리 명성을 떨치였다.

수백척의 적함선이 우글거리는 속으로 거북선이 앞장서 돌격하여 적지휘함을 들이받아 까부시고 재빨리 오고가며 포탄, 총탄, 화살을 들씌웠다. 우리 함대의 위용앞에 적들은 넋을 잃었다.

이날 싸움에서 조선함대는 30여척의 적함선과 4 000여명의 적을 소멸하였다.

이 바다싸움의 승리를 명량대첩(명량대승리)이라고 한다.

직산과 울돌바다싸움이 있은 후에 우리 군대는 도망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여 조선남해바다가의 좁은 구석에 몰아넣고 륙지와 바다에서 드센 공격을 들이댔다.

그리하여 적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1598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제소굴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전체 인민들과 군대는 일본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마지막으로 쳐없애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였다.

9월에 우리 군대는 울산, 사천, 순천(전라도)에 둥지를 틀고있던 적들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살구멍을 찾던 사천, 울산의 적들은 11월 중순에 배를 타고 모두 일본으로 도망치고말았다.

그러나 전라도 순천의 일본침략군만은 우리 수군이 길목을 지키고 있기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여기에 적대장도 있었다.

그리하여 경상도바다가에 있던 500여척의 적함선은 순천에 있던 저들의 패잔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로량(남해군)앞바다로 공격해왔다.

리순신장군은 한척의 적함선도 돌려보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바다길목을 단단히 봉쇄하였다.

궁지에 빠진 적대장은 리순신장군에게 뢰물을 보내면서 퇴각로를 열어줄것을 애걸하였다.

그때 장군은 크게 노하여 《임진년이래로 적을 수없이 잡아서 이미 로획한 총검도 산같이 쌓였고 또 원쑤의 물건은 어디에 쓰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왜놈의 대가리를 보물로 여기는데 이따위 총검이 무슨 보물이냐?》라고 하면서 적의 요구를 물리쳐버렸다.

드디여 리순신장군은 적함선을 앞질러 쳐없애기 위하여 1598년 11월 19일 전체 수군에 출전명령을 내려 로량앞바다로 진격하였다.

바로 이렇게 하여 임진조국전쟁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로량바다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조선함대는 적함선을 발견하고 량쪽으로부터 들이쳤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적함대는 큰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였다.

우리 함대는 겁에 질려 돌아치는 적선들에 련속 불벼락을 퍼부었으며 도망치는 적선을 끝까지 추격하여 까부셔버렸다.

이 가렬한 싸움마당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대를 능숙하게 지휘하던 리순신장군은 전투가 거의 끝나갈무렵 적탄에 맞았다.

최후를 마치는 순간 그는 손에 쥐였던 지휘기발을 옆에 있던 조카 리완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싸움이 한창 고비이니 내가 죽은것을 알리지 말고 대신 전투를 지휘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지휘기발을 넘겨받은 리완은 우리 수군장병들을 최후섬멸전에로 불러일으켜 적함선 200여척을 까부시고 근 2만명의 침략군을 바다속에 처넣었다.

로량바다싸움은 임진조국전쟁시기 가장 가렬한 싸움의 하나였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 수군이 마지막으로 크게 승리한 싸움이였다.

이 로량바다싸움의 승리를 로량대첩(로량대승리)이라고 한다.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이 흉악한 일본침략자들과 7년동안이나 결사

적으로 싸워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러면 임진조국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 나라의 방비는 매우 허술하였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태평성세만 부르면서 더 많은 권력과 노비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질만 하였을뿐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있던 무기까지 관리하지 않아 녹쓸게 만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말든 제 목숨만 건져보려고 도망치고말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섰다.

인민들은 직접 의병대오를 뭇고 곳곳에서 일본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겼으며 싸움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사를 지어 군량을 보장하였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임진조국전쟁에서 리순신, 곽재우 등 애국명장들의 역할도 컸다.

특히 리순신장군은 거북선을 완성하고 수군병력을 강화하였으며 능숙한 전투지휘와 뛰여난 전술로써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기에 1905년 짜리로씨야함대를 격파하고 군공을 세웠다는 일본해군사령관이라는자까지도 《진짜장군이라고 말할 사람은 조선의 리순신뿐이다. 나는 리순신장군에 비하면 그의 졸병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리순신장군의 애국심과 공적은 우리 인민들속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리순신장군을 비롯한 군사지휘관들은 모두 량반지주계급의 출신이였으며 그들이 지켜싸운 나라도 량반지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봉건국가였다.

때문에 리순신장군과 같은 옛날의 이름있는 장군들의 애국심은 물론 좋은것이지만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싸운 우리 시대 영웅들의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던 일본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다는데 있다.

다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것이다.

제2절. 청나라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1. 1627년 후금(청)의 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나라의 북방정세가 매우 긴장하여졌다.

그것은 서로 갈라져서 살던 녀진족들이 하나로 통합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조선과 명나라를 위협하는 침략세력으로 자라났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여전히 저들끼리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질만 하고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데만 골몰하였다. 그리고 명나라에 사대하는 반면에 새로 일어난 후금세력을 깔보면서 후금의 침략에 대처할만 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후금과 전쟁을 하고있는 명나라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대주는 무모한짓까지 하였다.

후금침략자들은 이것을 좋은 구실로 삼아 1627년 1월에 드디여 3만여명의 병력으로 조선에 불의에 쳐들어왔다.

적들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을 공격하여왔다. 의주성방위자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수적으로 많은 적들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성은 적들에게 강점되였다.

의주성을 강점한 적들은 계속 남쪽으로 침공하여 21일에는 청천강가에까지 기여들어 안주를 공격하였다. 안주성에는 후금침략자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자손들로 무어진 500여명의 복수군도 있었다. 그들은 안주성방위자들과 함께 침략군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안주성은 적들에게 강점되고 많은 사람들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후 침략자들은 숙천, 평양, 황주를 거쳐 1월말에는 황해도 평산에까지 기여들었다.

적들이 이렇듯 빠른 속도로 기여들수 있었던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적들을 쳐물리칠 방어대책 하나 똑똑히 세우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평양이 강점되자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 또는 전주로 도망쳐갔다.

그렇지만 적들에게 강점당한 지역의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용감히 싸웠다. 특히 청천강이북지역에서 의병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기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할수없이 평산계선에 머무른채 봉건정부와 화의를 맺은 후에도 물러가지 않고 청천강이북지역에 계속 머물러있으면서 파괴와 략탈을 일삼았다.

이리하여 후금침략군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이 다시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평양, 룡강, 강서지방 인민들은 의병투쟁을 힘있게 벌려 평양을 지탱점으로 하여 기여들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적들의 배후를 차단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투쟁의 불길은 청천강이북지역인 의주와 곽산, 정주, 선천, 철산 등에서 세차게 일어났다.

이 시기 의병부대들가운데서 이름높았던것은 정봉수의병부대였다.

정봉수는 철산사람으로서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무관이였다. 그는 염주군의 룡골산성에 들어가 4 000여명의 의병대를 무어 수백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말들을 로획하였다.

악에 받친 적들은 3월 중순 룡골산성을 공격해왔다. 성안에 있던 인민들과 군인들은 적을 바싹 접근시켰다가 포탄과 화살, 돌벼락을 안기여 수백명을 쓸어눕혔다.

이날 의병들은 5차례에 걸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룡골산성에서 정봉수의병부대가 치렬한 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소위포(룡천지방)에서도 김우와 리립이 지휘하는 3 700여명의 의병부대가 맹렬히 활동하고있었다.

2월 중순 의병들은 500명의 력량으로 적들을 공격하여 섬멸적타격을 주고 말 15필을 로획하였다.

첫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적들은 2월 21일 5 000여명의 병력으로 소위포에 기여들었다.

우리 의병들은 이날 밤 2 000여명으로 적들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이때 미리 약속한대로 바다로부터 수많은 인민들이 홰불을 추겨들고 북을 치면서 배를 타고 응원하여왔다. 그리고 사방에 불을 질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되자 넋을 잃은 적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월 중순 적들은 5 000여명의 대병력으로 소위포를 또다시 공격해왔다.

이날 의병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전과 습격전을 옳게 배합하여 적들의 공격을 쳐물리치고 성을 지켜냈다.

곳곳에서 의병들의 련속적인 타격을 받은 침략자들은 드디여 그해 8월에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도망치고말았다.

그리하여 후금침략자들의 제1차 침입은 적들의 참패로 끝났다.

2. 1636년 청나라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후금은 1636년 4월에 나라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또다시 대규모적인 침략을 시작하였다.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왕이 직접 12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불의에 침략하여왔다.

침략자들은 국경방어성이였던 의주의 백마산성에서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항전에 부딪치게 되자 그 성을 공격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침입하였다.

적들은 빨리 수도로 쳐들어가 왕을 사로잡고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키려고 안주도 그냥 지나쳤다.

봉건통치배들은 적들이 안주방어선까지 지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저들의 가족들을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날에 국왕과 관리들이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들이 서울가까이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2피난처였던 남한산성으로 도망쳐들어갔다.

이때 서울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적들과 맞서싸웠더라면 강행군으로 지칠대로 지친 침략자들을 능히 소멸할수 있었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제 한목숨만 살리겠다고 수도를 적들에게

내맡기고 도망치고말았다.

서울을 강점한 적들은 주력부대를 남한산성으로 출동시켰다.

첫 전투는 12월 18일에 벌어졌다. 이날 북문을 지키던 우리 군대는 성문을 열고나가 적들과 싸워 적지 않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하여 성안에 있는 군대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19일에 적들이 남쪽성문으로 침입하자 방어자들은 일제히 대포를 쏘면서 성문을 열고 돌격해나가 적들을 물리쳤다.

싸움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남한산성싸움에서는 이 성에 자진하여 들어와 전투에 참가한 부대들과 의병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24일에 550여명의 우리 군대는 성문을 열고나가 봉우리밑에 큰 나무울타리를 세운 다음 적들에게 포사격을 들씌워 100여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많은 활, 칼, 갑옷 등을 로획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투는 어려워졌다. 식량이 떨어져갔고 각 도에서 올라오던 응원군들도 적들의 포위를 뚫지 못하여 남한산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남한산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1637년 1월에는 강화도까지 적들에게 강점당하게 되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침략자들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화의를 인정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평양에서는 전장복, 조유부, 김지구 등이 각각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보산진을 근거지로 하여 투쟁을 벌렸다.

황해도의 평산과 해주에서 의병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특히 의병투쟁은 청천강이북지역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곽산에서는 홍천감과 리여각 등이 의병대오를 뭇고 릉한산성에서 여러차례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굳건히 지켜냈다.

또한 선천인민들도 전세록, 지득남이 지휘하는 의병대오에 들어가 철수하던 적들이 청천강벌에 왔을 때 앞뒤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끌려가던 1 00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이 전투때 의병 김언금은 자기 얼굴에 박힌 화살을 한손으로 뽑아버리고 다른 손으로 칼을 휘둘러 수많은 적들을 죽이였다.

이처럼 청나라침략자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인민들은 의병을 뭇고 결사적으로 싸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냈다.

제3절. 15～16세기의 문화

1. 《훈민정음》의 창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444년 1월 우리 인민은 세상에 자랑높은 우수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단군조선때부터 우리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신지글자를 만들어써왔다.

그후 우리 선조들은 인민들이 쓰기 좋으며 우리 말을 적는데 알맞는 보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것을 요구하였다.

봉건통치배들도 저들의 통치를 더욱 강화하는데 새 글자가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왕이였던 세종은 성삼문, 정린지, 신숙주 등 우수한 학자들을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에 모여놓고 새 글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10여년동안의 연구끝에 마침내 새로운 민족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우리 글자는 처음에 자음 17자와 모음 11글자를 합하여 모두 28자였다.

《훈민정음》은 세계의 수많은 글자들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매우 우수한 글자이다.

우리 글자의 우수성은 우선 글자의 모양이 독특한 원리와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글자라는데 있다.

또한 우리 글자는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말과 발음이든지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고 적을수 있으며 바람소리, 학의 울음과 닭의 울음, 개의 짖음도 다 적을수 있다.

우리 글자는 또한 배우기도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리 글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발전된 자기의 민족글자를 가지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2. 측우기와 흠경각

15세기에 우리 인민들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측우기와 흠경각을 만들었다.

측우기는 15세기에 우리 인민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비내림량을 과학적으로 재는 기구였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가지 기상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 비내리는 량을 정확히 알면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으며 자연피해도 미리막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고려시기부터 오랜 세월 비내리는 량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잴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깊이 연구하던 우리 인민은 마침내 1441년 8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를 발명하였다.

중앙에서 처음 만들어 설치한 측우기는 높이가 약 40cm, 직경이 약 16cm로서 둥근 통모양의 철제측우기였다.

그후에 측우기의 높이는 매개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 시기 지방들에서는 사기 혹은 질그릇으로 측우기를 만들어 관청마당에 설치하고 비가 올 때마다 그 시간과 량을 측정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여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가 측우기를 발명하여 과학적으로 비내림량을 잰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였다.

이딸리아사람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유럽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우량계를 가지고 비내리는 량을 잰것은 1639년으로서 우리 나라보다 근 200년간이나 뒤떨어진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15세기에 천문학분야에서 세밀한 관측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을 정확히 잴수 있는 여러가지 시계를 만들었다.

먼저 1434년에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냈다. 이 시계는 밥가마와 같이 우가 열려져있고 그가운데에 대를 세워 그 그림자의 끝

점이 떨어지는 눈금을 보고 시간과 계절까지 알수 있게 된 해시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계로는 해가 나지 않는 흐린 날의 시간을 잘 알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관청노비였던 장영실은 흐린 날에도 시간을 알수 있는 시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던 끝에 자격루라는 자동물시계를 만들었다.

이 자동물시계는 보루각이라는 건물안에 설치되였다.

이 시계는 높은 곳에 작은 구멍을 뚫은 물단지를 올려놓고 그밑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는 작은 물단지를 놓는데 이 작은 단지에 물이 차는데 따라 눈금을 가리키는 자막대기가 움직여 시간을 알리고 또 인형들이 저절로 나타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도록 되여있었다.

그후 4년이 지나서 장영실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또 새로운 자동물시계인 옥루기륜을 만들어 흠경각이라는 건물안에 설치하였다.

흠경각은 시간측정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의 변화를 관측하는 종합적인 시설이 설치된 건물이였다.

이 기구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천문현상과 시간을 더 정확히 알고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3.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는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높은 고려의학백과전서이다.

《향약집성방》은 1433년에 로중례를 비롯한 의학자들이 만든 의학책이다. 이 책은 85권으로 되여있다.

이 책에서는 959종에 달하는 여러가지 질병을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고치는 방법을 써놓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재의 산지와 그 약효능, 약제조방법과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밝히였다. 이 책은 여러번 찍혀져 의학교과서로 많이 쓰이였고 그후 일본에 건너가 널리 리용되였다.

《의방류취》는 1445년 로중례를 비롯한 의학자들이 만들어낸 365권으로 된 매우 큰 의학대백과전서였다.

이 책은 나라안팎의 150여가지의 의학책들을 참고로 하여 수많은 병과 그 치료법을 95개의 큰 부분으로 갈라 써놓았다.

《의방류취》는 이 시기 우리 나라 의학뿐아니라 동방 여러 나라들의 모든 의학성과들을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의학대백과전서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또 하나의 큰 자랑으로 된다.

유럽에서는 1807년에 에스빠냐에서 처음으로 7권으로 된 의학백과사전이 출판되였는데 《의방류취》보다 350여년이나 뒤떨어졌다.

4. 《고려사》와 《리조실록》

15세기에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사업이 많이 진행되여 수많은 력사책들이 만들어졌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왕의 권위를 높이며 반인민적인 통치경험을 써놓을 목적밑에 력사책을 만드는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력사책으로서는 《고려사》와 《리조실록》이다.

《고려사》는 1451년에 김종서, 정린지 등이 썼는데 고려시기의 력사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 책은 모두 139권으로 되여있다.

이 책에는 고려가 존재한 근 500년동안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관계 등 모든 력사적사실들이 왕대별, 년도별, 월별로 기록되여있다. 그밖에 통치기구와 벼슬이름 등의 내용들도 있다.

《고려사》는 고려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리조실록》은 리조시기의 력사를 적은 책이다. 이 책은 리조봉건국가 500여년간의 전 력사적시기에 있은 사실들을 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담고있다. 이 책은 1 763권으로 되였는데 이렇게 방대한 중세기의 력사책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 책은 리조시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교육,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력사적자료들을 풍부하게 엮어놓은 귀중한 력사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리조실록》원본을 귀중히 잘 보관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한문으로 된 《리조실록》이 우리 글로 번역되여 다시 출판되였다.

5. 거북선과 비격진천뢰, 비차

15～16세기에 우리 인민은 배무이와 무기제조기술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발명을 하였다.

15～16세기 배건조기술분야에서 우리 인민들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낸것이였다.

거북선은 1413년에 처음 만들어져 림진강에서 그 위력을 시험하고 그후 리순신장군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임진조국전쟁에서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게 되였다.

거북선은 총 길이가 35m였는데 그우에는 두꺼운 판자를 덮고 철판을 씌워 거북잔등과 같이 만들었다. 거북선이라는 배의 이름도 여기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거북잔등과 같은 배의 우에는 가로세로의 좁은 길만을 내놓고는 온통 칼과 송곳 같은것을 꽂아 적들이 그우로 기여오를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배안에서는 밖을 내다볼수 있으나 밖에서는 배안을 들여다볼수 없게 만들었다.

배안에는 여러가지 대포를 설치하여 사방 어느쪽에나 마음대로 대포를 쏠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북선의 앞머리는 룡의 대가리처럼 되여있는데 거기에서는 류황과 염초를 태운 연기를 내뿜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나온 연기는 연막을 형성하여 배의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거북선은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그러기에 적의 배를 들이받아도 끄떡없었으며 당시의 그 어떤 화살과 포탄도 거북선을 뚫지 못하였다.

그리고 거북선의 량쪽에는 노가 10개씩 있어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처럼 거북선은 세계최초의 철갑선으로서 포사격을 기본으로 하고 노를 저으며 적진으로 돌격하는 위력한 함선이였다.

이때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북선만

거북선

큼 위력한 함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유럽나라들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철갑선보다 200여년이나 앞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위력있는 새로운 화약무기들도 많이 발명되였다.

이 시기 만들어진 화약무기들가운데서 그중 제일 유명한것은 리장손이 만든 비격진천뢰였다. 이 무기는 신관장치가 달린 오늘의 시한탄과 비슷한것인데 그것이 적들속에 날아가 떨어지면 우뢰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터지기때문에 비격진천뢰라고 그 이름을 불러왔다.

비격진천뢰는 뽈모양의 둥근 쇠통에다 화약을 넣고 그안에 신관장치를 하고 완구포라는 대포로 쏘아 적들이 있는 곳에 날려보내면 좀 있다가 터지군 하였다. 터지는 시간은 신관에 련결된 화약심지의 길이에 따라 조절되였다.

이 무기의 위력은 1592년 9월 경주해방전투에서 잘 나타났다.

이때 밀양부사로 있던 박진이 1만명의 군대를 데리고 몰래 경주성에 다가가 성밖으로부터 성안의 적진에 비격진천뢰를 쏴넘겼다. 적들은 이 무쇠덩이 비격진천뢰의 비밀을 몰랐기때문에 모여들어 떠들썩하면서 칼로 찔러도 보고 만져도 보고 발로 툭툭 차면서 굴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많은 적들이 야단법석할 때 비격진천뢰가 갑자기 꽝하고 터지면서 하늘땅을 뒤흔들어놓았다. 이때 즉살한 적이 20여명이나 되였다.

이 시기 비차도 만들어져 리용되였다.

비차란 날아가는 수레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타고 날아갈수 있는 비행기구였다.

임진조국전쟁 첫 시기에 왜적들이 경상도의 진주성을 포위하였을 때 비차에 사람이 타고 성밖으로 30리를 날아가 외부와 련계를 가지였다.

이 시기의 비차는 가죽으로 된 큰 연에 날개를 붙이고 그안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사람이 타고 움직이도록 한것인데 여기에 련결된 바줄을 움직이면 바람을 내쏘면서 공중에 떠서 날아가게 되여있었다.

6. 시가와 소설의 발전

이 시기에 시가문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김종서, 남이 등이 녀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북방개척과 관련하

여 읊은 시들은 반침략애국사상을 내용으로 한 대표적인 시작품들이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변역에 일장검 짚고서서
긴 바람 큰 한소래에 거칠것이 없어라

이 시는 김종서가 1434년 함경도 도절제사로서 녀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쪽변방으로 나가면서 지은것이다.

시에서는 만리변역에 긴 칼을 짚고서서 침략의 무리들을 노려보며 그들을 단숨에 쳐부시고야말 결의에 차있는 서정적주인공의 름름한 모습을 거치른 북방의 자연경치와 잘 조화시켜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남이도 역시 시 《변강을 지키며》에서 반침략애국주의감정을 힘있게 잘 나타내였다.

백두산의 돌은 칼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한다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이 시는 그의 군인다운 기상과 굽히지 않는 의지를 그리면서 사내대장부답게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데서 큰 공을 세우고야말려는 결의를 노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에 백두산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혜산에 들리셨을 때 이 시구를 읊으시면서 남이장군은 나라와 민족앞에 큰 공을 세운 애국적인 명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우리 글의 발전과 함께 국문시가도 적지 않게 창작되였다. 그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시《관동별곡》은 시인 정철이 금강산과 그 일대를 구경하고 그 아름다움에 탄복하여 지은 시이다.

시인은 시에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차례로 잘 노래하였다.

그러나 시에는 왕의 사랑에 감격해하거나 량반들의 생활을 찬양하

여 노래한 부족점도 있다.

15～16세기에 시가문학과 함께 소설도 더 발전하고있었다.

그 대표적인것은 김시습의 소설집 《금오신화》에 들어있는 소설들과 림제의 《재판받는 쥐》이다.

소설집 《금오신화》에는 《리생의 사랑》, 《부벽정의 달맞이》, 《남염부주이야기》 등을 비롯한 다섯편의 소설이 실려있다.

이 소설들은 1464년경 작가가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서 몇년동안 살던 때에 봉건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인민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표현하여 쓴것이다.

그러나 그 모순을 봉건제도자체의 모순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어느 개인의 포악한 정치로만 그리는 결함을 나타내고있다.

림제의 소설 《재판받는 쥐》는 늙은 쥐가 나라의 곡식창고에서 곡식을 도적질해 먹다가 창고를 지키는 신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였다.

교활한 늙은 쥐는 자기의 죄를 다 터놓을 대신에 그것을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넘겨씌우려고 갖은 발악을 다한다.

소설은 이 늙은 쥐의 교활한 행동을 통하여 나라의 재산을 훔쳐먹고도 도리여 자기의 죄를 남에게 들씌우는 량반관리들의 악독한 죄행을 발가놓았다.

7. 건축과 미술

15～16세기의 건축물로서 오늘 남아있는 평양 보통문과 서울 남대문, 개성 남대문 등은 이 시기 건축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준다.

평양 보통문은 1473년에 평양의 서문으로 다시 세워진것이다.

보통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무지개모양의 성문을 높이 쌓아올린 터우에 2층 다락집을 세운것이다.

보통문은 모양이 의젓하고 안정감을 주며 날아갈듯 시원한 조선식기와지붕이 보통강의 아름다운 풍치와 잘 어울려 조선식건축의 우수한 형식을 잘 보여준다.

서울 남대문도 2층 다락집으로서 역시 웅장하면서도 거뜬하고 시원스럽게 꾸려져 옛 수도의 성문다운 위용을 잘 나타내고있다.

15～16세기에 그림이 또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조시기 화가 안견이나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답습니다.》

안견은 15세기의 이름난 화가였다. 그는 인물화, 동물화를 잘 그렸으나 특히 풍경화를 더 잘 그리였다. 대표적인 그림은 《꿈에 본 동산》이다.

그림은 깎아세운듯이 둘러선 층암절벽과 높고낮은 언덕, 꽃이 만발한 복숭아나무, 꽃밭속에 잠겨있는 작은 초가집, 산기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구불구불 돌아가는 좁은 오솔길, 맑은 시내물 등 조선의 동산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들을 재치있게 잘 그렸다.

16세기에는 리상좌, 신사임당 등이 그림을 잘 그리였다.

리상좌는 가장 천대받던 노비신분이였으나 어려서부터 그림재주가 뛰여난것으로 하여 마침내 손꼽히는 화가로까지 되였다. 대표적인 그림은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이다.

이 그림에는 깎아지른듯 한 벼랑중턱바위틈에 붙어 비바람과 힘차게 싸우면서 꿋꿋이 서있는 늙은 소나무가 잘 그려져있다. 그리고 그아래 길우에는 늙은이와 시중하는 아이가 허공에 뜬 달을 올려다보면서 거닐고있다.

이 그림을 통하여 화가는 자신이 살아온 처지와 생활, 그의 강한 마음과 굳센 기상을 잘 나타내였다.

신사임당은 중세기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녀성화가였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친근한 장면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가운데서 《가지》그림이 잘되였다.

이 그림은 한여름 따뜻한 해별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가지를 그린것인데 짙은 잎사귀, 우로 뻗어오른 줄기와 무겁게 드리운 탐스러운 가지의 모양을 아주 생동하게 그렸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작품들은 거의다 봉건통치배들의 리용물로 되고말았다.

제3장.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평안도농민전쟁과 1862년 전국농민폭동

제1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1.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류통

1608년 어느날 온 나라에 대동법을 실시한다는 국가의 법이 선포되였다.

이 법을 보면 여러가지 지방특산물을 받던 공물대신 이제부터는 그것을 토지면적에 따라 쌀로 받아들인다는것이였다.

봉건국가는 대동법의 실시를 떠들면서 그것을 집행하는 관청이름도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는 뜻에서 선혜청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대동법은 량반관료들이 떠벌이는것처럼 결코 인민들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봉건국가가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것은 공물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막으며 국가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서였다.

공물착취는 이 시기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혹한 착취로 되고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공물착취를 피하여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버리거나 폭동을 일으켜 공물창고를 들이치고 공물을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 공물착취에서는 량반관료배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이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공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때문에 국가창고에 들어가는 공물의 량이 점점 줄어들어갔다. 그리하여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반항기세를 가라앉히면서 봉건국가의 착취량을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게 되였다.

이 시기 상품생산이 활발히 진행되여 이제는 쌀만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시장을 통하여서도 능히 살수 있었다.

이로부터 봉건국가는 1608년에 경기에서부터 시작하여 100년동안에 걸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에 의하여 봉건국가는 공물착취대신에 토지 1결에 쌀 12~16말을 받아내게 되였다.

대동법은 결국 인민들에 대한 착취방법을 바꾸어놓은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동법의 실시는 상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봉건국가에 들어가던 물건들이 시장으로 나오고 또 봉건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쌀을 주고 장에서 사들임으로써 사고파는 물건들이 더 많아지게 되였다.

상업의 발전은 지금까지 돈의 역할을 해온 쌀과 천보다도 더 편리한 화폐(돈)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쌀과 천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돈으로 쓰기에는 매우 불편하였으며 오래 보관할수도 없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이미 11세기와 15세기에 쇠돈과 구리돈이 만들어져 어느정도 쓰이였으나 그때에는 아직 생산이 덜 발전하고 상품을 팔고사는 일이 많지 못하였기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였다.

또 은으로 만든 돈은 값이 비싸고 귀한 금속이기때문에 큰 상인들속에서나 쓰이였지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봉건국가는 1634년 《상평통보》라는 구리돈(엽전)을 만들어 일부 지역에서 류통시키다가 1678년에는 그것을 온 나라에서 쓸것을 공포하였다.

봉건정부는 엽전이 널리 쓰이게 되자 그것을 계속 많이 부어냈으며 그전에 쌀이나 천으로 받던 전세, 대동미, 군포를 엽전으로 받기도 하였다. 또한 량반지주들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작료를 엽전으로 받고 품삯을 엽전으로 주는 현상도 점차 늘어났다.

이처럼 금속화폐인 엽전이 널리 쓰이게 된것은 사회경제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우선 상품화폐경제를 더욱 발전하게 하고 자연경제를 점차 허물어지게 하였다.

자연경제란 봉건시대에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남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소비하기 위해 물건을 생산하는 경제를 말한다.

엽전이 널리 류통되면서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뿐만아니라 돈을 받고 팔기 위한 물건생산을 늘이였다.

이렇게 상품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된 상품을 돈을 가지고 사고파는

경제를 상품화페경제라고 한다.

엽전의 류통은 또한 봉건신분제도를 점차 무너지게 하였다.

신분이 높은자도 돈이 없으면 잘살수 없게 되고 반면에 낮은 신분의 사람도 돈만 있으면 잘살게 되였으며 돈만 있으면 노비신분에서도 벗어날수 있었다.

그리하여 노비들은 상전에게 돈을 내고 신분을 량인으로 고치고 량반들속에서는 벼슬을 팔고사는 현상도 나타났다.

엽전의 류통은 또한 부자들은 더욱 잘살게 하고 인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엽전의 류통은 지배계급들속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높여주고 돈을 수단으로 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량반지주들은 인민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1년 또는 몇달동안에 리자를 붙여 착취하였으며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토지와 집, 가산을 마구 빼앗아냈다.

이리하여 엽전의 류통은 인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반면에 량반지주, 상인들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파산된 농민, 수공업자들은 무산자로, 품팔이군으로 되여갔다.

2.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봉건사회가 오래동안 존재하였으나 일찍부터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자본주의적관계도 발생발전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18세기부터 봉건사회의 울타리안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적관계란 돈많은 부자들이 생산도구와 원료를 마련해놓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적관계가 생겨나려면 두가지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첫째로, 신분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아무 재산도 없기때문에 품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온 나라 곳곳에서 많

이 생겨나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량반지주들에게 자기 땅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도시와 농촌에 가서 품을 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광산이나 수공업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후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면서 곧 로동자로 되였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봉건국가도 이전처럼 인민들을 강제적인 부역로동에 제마음대로 자주 내몰수 없게 되였다.

자본주의적관계가 생겨나려면 둘째로, 많은 돈을 가진 부자(자본가)가 있어야 한다.

돈많은 부자들이 있어야 생산도구와 원료를 마련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수가 있었다.

이 시기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그러모은것은 봉건량반지주들이였으나 그들은 옛날처럼 대부분의 돈을 토지를 사들이는데만 쓰고 광산, 수공업 같은것은 많이 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주의적관계는 빨리 발전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돈을 광산이나 수공업을 하는데 밀어넣었다.

그들은 량반지주들과는 달리 자본가로 되는데서 신분적으로도 꺼릴것이 없었다.

이 시기 상인들가운데는 수십만량 지어는 그이상의 돈을 모은 대상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돈의 많은 몫을 광산이나 수공업장에 밀어넣고 돈벌이를 하였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관계가 생겨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는 광산들에서 제일먼저 생겨났다.

수공업과 국내외상업이 발전하고 엽전이 널리 쓰임에 따라 금, 은, 동에 대한 수요가 부쩍 높아지고 그 값이 비싸졌다. 이에 따라 여기에 돈을 밀어넣는 대상인들이 계속 늘어났다.

이 시기 광산들에서 일하던 로동자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류랑민들이였던것만큼 쌀이나 돈, 곡괭이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과 도구들을 받지 않고서는 일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것을 리용하여 상인

들은 광산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에게 쌀이나 돈, 곡괭이와 같은것들을 보장해주고 그 값으로 그들이 캐온 광석을 넘겨받거나 꾸어준 돈의 리자를 받아냈다. 이때 그 상인을 물주라고 하고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점군이라고 불렀다.

물주들은 더 나아가서 봉건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피하여 몰래 직접 광산을 차려놓고 자기의 돈으로 점군들을 얽어매여 생산을 조직하고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물주들은 이제 와서는 광산의 실제적인 지배자, 경영주인 광주로 등장하게 되였다. 바로 그들이 그후 자본가로 되였다.

광주들은 처음에 생산을 조직할 때에 점군들이 함께 모여 동시에 같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산이 늘어나게 되자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점군들을 여러 조로 갈라서 어느 한 작업만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광산들에서 광주(자본가)와 점군(로동자)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는 새로운 착취관계, 자본주의적인 착취관계였다.

즉 광주들은 점군들을 돈에 얽어매놓고 착취하였으며 점군들은 주로 돈에 의하여 광주들에게 예속되여있었다.

점군들은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보잘것 없는 임금을 받았다. 반면에 광주들은 점군들이 캐낸 금, 은, 동 등을 독차지하여 더 큰 부자가 되였다.

자본주의적관계는 광업에서뿐아니라 수공업부문에서도 발생하였다.

제철 및 철가공업, 놋그릇수공업 등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은 광산에서와 비슷하였다.

이 시기 철과 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봉건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제철 및 철가공수공업이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큰 상인들은 수공업장들을 차려놓고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철과 여러가지 철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서북지방 특히 개천지방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개천지방은 원래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여있고 제철 및 철가공업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곳이였다.

개천지방의 제철수공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들은 철덕(용광로)을 차

려놓고 많은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철을 생산하였다. 19세기 개천지방에는 이러한 철덕이 50～60개나 널려있었다.

철가공업에서는 생산된 철을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철제품들을 만들었다.

철가공업에서 특히 이름이 높은것은 개천 무진대의 가마를 부어만드는 수공업이였다. 무진대는 개천지방에서 가마를 부어만드는 수공업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가마만드는 수공업을 경영하던 한 자본가는 80～90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3개의 작업장을 운영하였는데 한개 작업장에서 10일동안에 1 000여개의 가마를 생산하였다.

놋그릇수공업에서 자본주의적관계는 정주 납청지방에서 발전하였다. 원래 정주, 박천상인들은 조선서해지방에서 나는 소금과 수산물을 말파리로 갑산 고진동광산에 실어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동을 사다가 놋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에게 팔아넘기였으며 또 놋그릇을 사가지고 각지 시장에 날라다 팔아서 큰 리득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 일부 큰 상인들은 점차 놋그릇수공업자들을 예속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큰 작업장을 차려놓고 로동자들을 고용하여 착취하는 자본가로 자라났다.

납청지방의 상인이였던 박명조는 19세기 중엽에 2만～3만량의 많은 돈을 가지고 양대점을 경영하였다.

자본가가 된 박명조는 원료를 사들이고 제품을 팔아넘기는 일만 하면서 로동자들을 착취하여 더 많은 리득을 얻었다. 로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일해준 값으로 5일에 한번씩 품삯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18세기 중엽이후 광산과 수공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약하였으며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억압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발전이 폭넓게 빨리 이루어질수 없었다.

그렇지만 봉건사회안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한것은 우리 나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점차 넘어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2절. 봉건통치제도의 문란

1. 1801년 공노비의 해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피압박인민대중은 사회적예속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1801년 1월 봉건정부는 서울에 있는 노비들은 모두 왕궁앞에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금까지 노비라는 신분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해오던 수많은 노비들이 영문도 모르고 왕궁앞으로 모여왔다. 모여온 노비들은 대부분이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고역을 치르던 공노비들이였다.

그들은 지난날 참을수 없는 신분적인 천대와 멸시, 가혹한 착취를 받아오면서 그를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그들은 농민폭동군에 들어가 싸우기도 하고 개별적인 상전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지어 많은 노비들은 상전의 눈을 피해 멀리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마을을 이루고 살기까지 하였다.

노비신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노비제도를 더는 그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 봉건통치배들은 할수없이 노비들의 투쟁기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공노비해방이라는것을 들고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봉건정부는 왕궁앞에 모여온 수많은 노비들앞에서 왕실과 중앙관청에 속한 6만 6 000여명의 공노비들을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하여 량인으로 만든다고 선포하고 그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였다. 그러면서 노비들에게 큰 혜택이나 베푼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었다.

활활 타버리는 노비문서를 보는 공노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저주러운 문서때문에 온 가족이 대대로 노비로 되여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여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노비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한뙈기의 땅도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고 또 량인이 되면 봉건국가로부터 군포, 부역 등의 가혹한 착취를 받아야 하였기때문이다. 결국 량인이 된다 해도 생활에서는 노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량반통치배들이 노비를 해방하면서 노린 목적이 바로 이것이였다.

그들은 공노비제도가 실지로는 거의 무너지다십이 되여있고 또 공

노비를 량인으로 만든다 해도 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손해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몸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량인으로 된 사람들은 먹고 살아나가기 위하여 소작농으로 되거나 광산이나 수공업장에서 계속 착취와 압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고 지방관청에 얽매여있는 공노비들과 개인량반지주들에게 예속되여있는 사노비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801년 공노비의 해방에 의하여 수만명의 많은 공노비들이 노비신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공노비제도는 무너져가게 되였다.

그후에 사노비들속에서도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이 강화되였다.

어떤 노비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쳐감으로써 상전의 예속에서 벗어나 량인으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비들은 상전에게 돈을 내고 신분을 량인으로 고치기도 하였다. 이것은 결국 수천년동안 내려온 노비신분제도가 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2. 안동김가의 세도정치

세도정치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사람의 량반관리나 그 일족이 틀어쥐고 독판을 치는 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정치가 우리 나라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나라를 파국적상태에로 몰아넣었다.

그러면 세도정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후과를 가져왔는가.

1800년 6월 어느날 서울의 안동(장동이라고도 함)에서 살고있던 김조순에게 국왕인 정조로부터 빨리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령이 내려졌다. 김조순은 그때 국왕의 충신으로 인정받고있었다. 김조순이 허겁지겁 왕궁으로 달려가니 운명을 앞둔 국왕이 그에게 유언을 남기였다.

이제 자기가 죽으면 11살 나는 어린 아들이 왕으로 될터인데 그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였다. 드디여 정조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순조)이 왕자리에 올랐다. 이때부터 김조순은 권력욕심이 부쩍 생겨 어린 왕을 끼고 나라일을 제마음대로 하였다.

그는 자기의 딸을 순조에게 시집보내고 그의 장인이 되였다.

어린 순조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굳게 믿고 나라의 실권을 넘

겨주었으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처켠이며 또 외켠인 김조순과 그 일족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를 독판치게 되였는데 이를 가리켜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라고 한다.

안동김가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량반통치배들은 썩을대로 썩고 봉건통치는 극도로 어지러워졌으며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하여졌다.

세도정치아래에서 봉건국가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안동김가의 사랑방에서 결정되고 처리되였다.

세도량반들은 독판을 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왕도 마음대로 고르고 국왕의 친척들도 마구 학살하였다. 안동김가는 리조 25대왕으로 지목되였던 리원경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가 하면 그의 동생인 철종을 강화도에서 데려다 왕으로 올려앉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리하여 봉건왕권은 완전히 뒤자리에 밀려나 허수아비로 되고말았다.

그러므로 그때 사람들은 《안동김가에 대해서는 알지만 국왕이 있다는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안동김가일당은 관리들을 제 마음대로 떼고붙이면서 벼슬자리를 뢰물이나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도의 감사자리는 5만～6만냥, 고을의 원자리는 2만～3만냥에 팔리였다.

량반들을 관리로 임명할 때 시험을 치는 과거제도라는것도 뢰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먹는 돈벌이수단으로 되고말았으며 과거시험장은 물건거래장소로 전변되였다.

이 시기 과거임명제도가 얼마나 헝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였던지 량반들은 벼슬을 할 생각만 있게 되면 의례히 뢰물을 싸들고 안동김가의 집앞에 가서 줄지어섰다. 그러면 안동김가패거리가 나와 줄지어서있는 자들가운데서 보따리가 큰 놈만 골라 관리로 임명하였으며 또 돈벌이를 위해 벼슬자리를 하루가 멀다 하게 갈아치웠다.

이렇게 많은 뢰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량반관리들은 그들대로 자기가 들인 밑천을 하루빨리 뽑아내며 더 많은 재산을 그러모으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감사나 원들은 임명되여오면 짧은 기간에 인민들을 더 많이 착취략

탈할 궁리만 하였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국가가 규정한 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조세를 더 받아 떼먹었으며 기본세외에 여러가지 잡세를 덧붙여 저들의 배를 채웠다.

이 시기 평안감사는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붙잡아가두어놓고 가혹한 고문을 들이대면서 벌금을 받아 1년도 못되는 사이에 3만량의 돈을 강탈하였다.

경상감사는 이런 방법으로 2만 8 000량을 빼앗아냈다. 초산부사는 청나라로 다니는 무역상인들로부터 돈과 인삼을 빼앗아내기 위하여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죄명을 붙여 그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들이대던 끝에 7명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자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인삼과 금, 은을 빼앗아 세도대신들과 나누어먹었다.

이리하여 안동김가들은 모두 큰 지주로 되였으며 그밑의 량반관리들도 큰 부자로, 지주로 되였다. 서울 안동김가들의 쌀고간에 쌓아둔 곡식은 국가창고에 있는 쌀에 못지 않게 많았다고 한다.

세도량반들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인민들의 살림은 더욱더 쪼들려갔고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농민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갔다.

세도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은 점점 더 높아갔다.

제3절.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1. 농민전쟁의 준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은 안동김가의 세도정치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한 큰 규모의 농민전쟁이였다.

농민전쟁의 지휘자는 평안도 룡강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홍경래였다.

당시 서울의 량반통치배들은 평안도지방사람들을 신분적으로 더 차별하고 멸시하였다. 다른 한편 평안도인민들은 청나라로 오고가는 사신

들의 뒤치닥거리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이 지방농민들은 물론 광산로동자, 품팔이군, 수공업자, 상인들을 비롯한 인민들속에서는 세도정치와 신분적차별, 가혹한 착취에 대한 반항심이 더욱 높아갔다. 지어 일부 량반들까지도 지방적차별에 불만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시기 홍경래는 큰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19살에 과거시험을 쳤는데 세도량반들은 그가 평안도사람이라고 하여 불합격시켰다.

이에 더 큰 불만을 가진 그는 세도량반들을 쓸어버릴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그는 풍수쟁이로 가장하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정세를 료해하고 손잡고 싸울 우군측, 리희저 등의 동료들을 묶어세웠다.

천한 신분출신인 우군측은 장사도 하고 광산을 경영하고있었는데 상인들과 자본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누르고 신분적으로 천시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있었다.

홍경래는 이들과 함께 가산군 다복동(현재 운전군)에 본거지를 정하고 폭동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금광을 경영한다는 소문을 크게 내여 다복동에 수많은 농민들과 품팔이군, 광산로동자들을 집결시킨 다음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한편 금광을 경영하고 인삼무역을 하여 군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군량과 군복, 무기, 탄약 등을 모아들였다.

농민군지휘부는 홍경래를 총대장으로 하고 김사용을 부대장, 우군측을 총참모, 리희저를 후방책임자로 하여 구성되였다.

2. 농민전쟁의 개시, 청천강이북지역의 점령

여러해동안 준비를 갖춘 농민군은 1811년 12월 18일에 투쟁을 개시하였다. 농민군부대는 남진군과 북상군으로 나뉘여 남쪽과 북쪽 두 방향으로 쳐나갔다.

홍경래가 지휘한 남진군은 그날 밤으로 가산읍을 들이쳐 관청을 점령한 다음 원놈을 처단하였으며 계속하여 박천과 정주를 점령하였다.

김사용이 거느린 북상군은 곽산을 점령한 다음 계속 북으로 진격하여 태천, 선천, 철산, 룡천 등 여러 고을들을 차지하였다.

농민군은 열흘도 못되는 사이에 청천강이북의 중요지대를 거의 다

차지하였다. 농민군은 창고를 열어 돈과 쌀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량반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아 군자금으로 리용하였다. 그리고 각 고을에 자기들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군사행정사업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 무렵 홍경래는 박천진두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평안도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보냈다.

각계층인민들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농민군대오는 며칠사이에 수천명으로 자라났다.

3. 송림전투와 정주성전투

농민군은 박천진두를 차지한 다음 곧 청천강을 건너 안주로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농민군지휘부는 북상군이 의주, 구성을 점령하기만 하면 그 무력과 합세하여 안주를 공격점령하고 평양을 거쳐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남진군은 안주건너편 청천강기슭의 송림으로 진출하였다.

송림은 안주병영으로부터 불과 10리밖에 안되는 곳에 있었다.

이때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은 중앙토벌군을 편성하는 한편 평안도의 지방군을 안주성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12월 29일 토벌군은 청천강을 건너 송림에 있는 농민군을 공격해왔다.

송림들판에서는 2 000여명의 토벌군과 800명의 농민군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농민군의 한 부대는 토벌군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고 다른 한 부대는 토벌군의 뒤통수를 답새기였으며 또 다른 부대는 익측에서 공격하였다. 당황한 토벌군은 500여명의 예비대를 내몰아 갑자기 농민군의 뒤면으로 달려들었다. 농민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토벌군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안주공격을 뒤로 미루고 박천진두로 물러나서 대렬을 수습한 다음 정주성으로 후퇴하였다. 같은 시기 북상군도 공격해오는 토벌군에 타격을 주었으나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정주성으로 모여왔다.

홍경래는 남진군과 북상군을 다 합쳐 2 000여명으로 된 대오를 정비하고 군량을 마련하면서 적들을 맞받아칠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한편 8 000여명의 토벌군은 농민군이 차지하였던 청천강이북의 여러 고을들을 점령한 다음 1812년 1월 15일부터 정주성을 포위하고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농민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적들을 수십m거리까지 접근시킨 다음 일제사격을 퍼부어 무리죽음을 주었다.

참패를 당한 봉건통치배들은 그 책임을 들씌워 토벌군우두머리들을 갈아대는 한편 농민군의 가족 30여명을 체포하여 성문앞에 세워놓고 농민군에게 투항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견결히 싸웠다.

3월부터 농민군은 부대를 절반씩 갈라 1 000여명은 성을 지키고 나머지 1 000여명은 성밖으로 나가 대담한 반격전을 벌렸다. 3월 9일 이른새벽 1 000여명의 농민군은 새벽단잠에 곯아떨어진 토벌군의 진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200여명을 소멸하는 큰 전과를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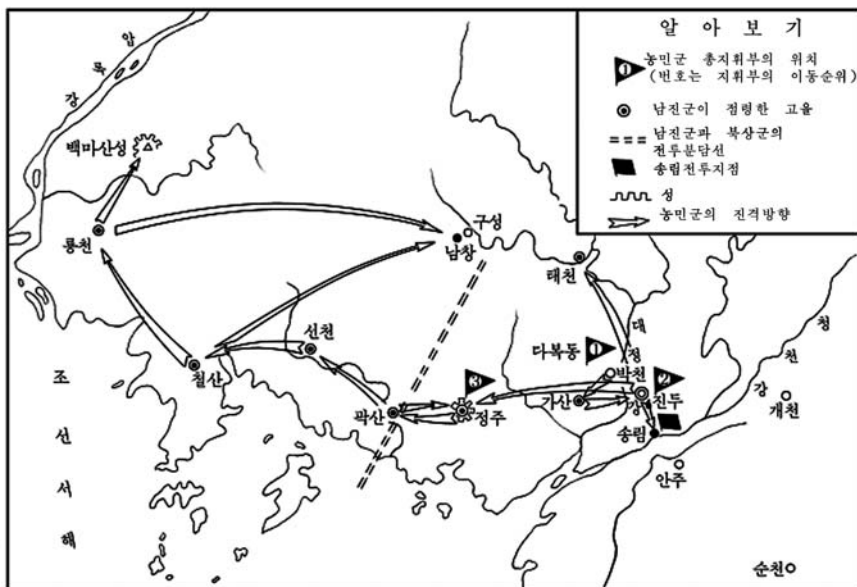
농민군은 대낮에도 습격전을 벌려 토벌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전투가 오래 계속됨에 따라 형편은 농민군에게 차츰 불리해졌다. 적지 않은 농민군이 전사하고 식량마저 떨어졌으며 탄알과 화살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굴함없이 싸웠다.

정면공격으로써는 도저히 성문을 돌파할수 없다고 생각한 적들은 4월에 접어들면서 근 보름동안에 걸쳐 성밑까지 땅굴을 파고 기여들어 1 800여근의 폭약을 다져넣었다.

4월 19일 새벽 적들은 성벽을 폭파시키고 성안으로 쓸어들었다.

농민군은 토벌군을 맞받아 마지막 결사전을 벌렸으나 끝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홍경래를 비롯한 많은 농민군들이 전사하였으며 정주성은 놈들에게 강점되였다.

성안에 기여든 놈들은 거의 2 000명이나 되는 농민군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이리하여 넉달동안에 걸쳐 벌어진 평안도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평안도농민전쟁도

평안도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정확한 투쟁구호를 들지 못하고 광범한 농민들을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지 못한데 있었다.

농민군은 막연하게 세도정치를 끝장내고 고통을 겪는 인민들을 구원하자고 하였을뿐 그들을 억압착취하는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농민전쟁이 실패한 다른 하나의 원인은 농민군지휘부가 옳은 투쟁전술을 쓰지 못한데 있었다.

평안도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농민전쟁은 우선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봉건제도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농민전쟁은 또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억센 힘을 보여주었으며 그후 인민들의 반봉건투쟁기세를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평안도농민전쟁은 썩어빠진 봉건제도가 더욱 빨리 무너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제4절. 1862년 전국농민폭동

1. 3정착취와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

1862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3정착취를 페지하라!》, 《악질관료배들을 처단하라!》는 농민들의 웨침이 그칠새없이 터져올랐다.

3정착취란 봉건통치배들이 농민들에게 들씌우는 전정, 군정, 환정에 의한 착취를 말한다.

전정은 봉건국가가 농민들의 토지소유면적에 따라 그들로부터 곡식을 받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원래 18세기 중엽에 나온 법에 의하면 농민들이 봉건국가에 착취당하는 전세는 토지 1결에 쌀 20여말정도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여기에 새로운 종류의 세를 계속 덧붙이고 각종 롱간질을 다하여 토지 1결에서 무려 50～60여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쌀을 빼앗아냈다.

군정 역시 매우 가혹하였다.

군정이란 군대에 복무할 농민들로부터 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군포(베천)를 빼앗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이 시기 농민들이 봉건국가에 물어야 할 군포는 한해에 군정 1명이 베 한필을 바치는것이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군포를 물어야 할 사람수를 엄청나게 늘구는 방법으로 군포착취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젖먹이어린이와 이미 죽은 사람들, 지어는 배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름을 지어 군사복무대상자명단에 올리고 군포를 빼앗아냈다. 그리하여 적성현의 한 농민은 5살 난 큰 아들과 3살 난 작은 아들의 군포값으로 해마다 50량의 돈을 빼앗겼으며 강진군의 어떤 농민은 세상에 태여난지 3일밖에 안되는 아들의 군포값으로 온 집안의 목숨이 걸려있는 소를 빼앗기고말았다.

또한 봉건통치배들은 가혹한 봉건적착취에 못견디여 제고장을 떠난 사람들의 군포까지 그의 친척이나 이웃사람들에게 넘겨씌워 빼앗아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몇십년사이에 군포를 물어야 할 사람수는 50만으로부터 200만으로 뛰여오르게 되였고 한사람이 보통 2～3명, 지어

4～5명의 군포를 걸머지게 되였다.

3정가운데서 가장 가혹한것은 환정이였다.

환정이란 봉건국가가 매 집에다 봄에 국가창고의 쌀을 꾸어주고 가을에 리자를 덧붙여 받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은 봄에 썩은 쌀이 아니면 모래와 쭉정이가 절반이상 섞인 쌀을 내주고 가을에 가서는 좋은 쌀로 비싼 리자를 붙여 빼앗아냈다. 또한 봄에 쌀을 내줄 때에는 작은 말로 되여주고 가을에 받아들일 때에는 큰 말로 되여 받았다.

지어 이자들은 농민들에게 한알의 쌀도 내주지 않고 장부책에는 꾸어준것처럼 올려놓은 다음 가을에 환자빚을 빼앗아가는 날강도짓까지 하였다.

농민들은 땅과 집을 잃고 살길을 찾아떠났으며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갔다. 1834년 1월에 서울에서만도 굶어죽은 사람을 파묻은 묘지가 1 005구나 되였다.

가혹한 압박과 3정착취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심이 차넘치였고 그것은 마침내 농민폭동으로 터져올랐다.

2. 1862년 진주농민폭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1862년에 들어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전국각지에서 세차게 일어났다.

진주농민폭동의 동기는 경상도 병마사 백락신이 진주에 온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온갖 악착한 방법으로 인민들로부터 10여만량이나 되는 많은 돈을 빼앗아낸데 있었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진주지방농민들은 마침내 1862년 2월 14일에 류계춘, 리계렬 등의 지휘밑에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농민들은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들고일어나 장마당을 들부시고 악질량반지주들을 족치였다. 폭동군은 진주주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악질량반지주들의 죄행을 규탄하고 놈들의 집을 허물어버렸으며 폭동군대오를 늘여나갔다.

2월 18일 수만명의 폭동군은 일제히 진주읍으로 쳐들어갔다.

머리에 흰수건을 동여매고 손에 참대창을 틀어쥔 수만명의 농민들이 산과 들을 뒤덮으면서 물밀듯이 달려들자 관리들은 감히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뿔뿔이 도망치고말았다.

진주읍을 점령한 폭동군은 량반차림을 한 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쳤으며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지주, 부자들과 악질서리들도 모두 처단하였다.

폭동군은 백락신을 붙잡아 군중들앞에 꿇어앉히고 그자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한 다음 환자착취를 그만두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 내용을 글로 써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것으로 자기들의 소원이 풀린것으로 생각하고 며칠 후에는 대오를 헤쳐 집으로 돌아가버렸는데 이것은 폭동군의 큰 잘못이였다.

진주농민폭동에 당황한 봉건정부는 백락신과 진주고을 원을 급히 갈아치우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넘겨씌우는 한편 100여명의 폭동참가자들을 체포하여 고문을 들이대고 악형을 들씌웠다. 그리고 류계춘을 비롯한 폭동지휘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이렇게 되여 진주농민폭동은 진압되였으나 그들이 일으킨 투쟁의 불길은 삽시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일대를 휩쓸었다.

경상도에서는 3월부터 6월초에 걸쳐 10개 고을에서 14차레나 폭동이 일어났다. 개령에서는 4월초에 수천명의 인민들이 관청을 들이치고 악질관리들을 족쳤으며 감옥을 들부시고 죄없이 갇히였던 인민들을 구원하였다.

농민들의 투쟁은 그해 12월까지 전국 여러곳에서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가운데서 제주도인민들의 폭동이 가장 컸다. 제주도인민들은 이기간에 세차레나 큰 폭동을 일으키고 완강히 싸워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1862년 2월 진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농민폭동의 불길은 삼남지방을 휩쓸었으며 그해말에는 온 나라에 퍼지였다. 그러나 40여개의 고을에서 일어났던 1862년 농민폭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여러 지역 농민들이 단결되여 싸우지 못하고 제각기 일어나 련계없이 싸운데 있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끝까지 싸우지 못한데도 있었다.

그러나 1862년 전국농민폭동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제5절. 17～19세기 전반기 문화

1. 실 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보적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학은 17세기에 발생하여 19세기 중엽까지 발전하여온 진보적인 학문으로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

실학이란 실지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되 그것을 사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할것을 주장한 학문체계를 말한다. 실학이라는 말은 쓸모있는 학문 즉 실용지학의 줄인 말이다.

실학은 17세기 이후 조성된 정세로부터 량반계급내부의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속에서 학문연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데로부터 발생발전하였다.

17세기 이후 봉건국가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량반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덮어놓고 큰 나라의것을 따르고 봉건유교리론만 따지면서 빈말공부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이로부터 진보적인 학자들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빈말공부만 할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학은 17세기에 리수광, 류형원으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리익, 박지원, 홍대용 등에 의하여 발전하였고 19세기초 중엽에는 정약용(정다산), 리규경, 최한기에 의하여 더욱 발

전하게 되였다.

실학자들이 연구한 쓸모있는 학문은 덮어놓고 큰 나라의것만 따르고 자기의것을 업수이 여기는 사대주의적인 량반들과는 다르게 조선의 력사와 지리, 정치, 경제, 군사, 언어, 풍습 등 우리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한것이다.

그리고 반동적인 봉건유교학자들이 천하게 여기던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의학, 농학 등 자연과학과 기술도 쓸모있는 학문의 하나로 보고 그 연구에 큰 힘을 넣었다.

실학자들은 여러가지 낡은 봉건적인 제도들도 일부 고칠것을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나라를 개혁할데 대한 내용들과 방도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우선 봉건통치제도와 신분 및 관리등용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일부 고칠것을 주장하였다.

실학자들은 봉건통치배들가운데서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자들을 가리켜 황충, 천하의 큰 도적놈이라고 규탄하면서 선량한 임금과 관리가 나와 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놀고먹는 량반들에게도 일을 시키며 농민, 수공업자, 상인 할것없이 모두가 재능에 따라 알맞는 직업에서 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노비제도에서도 사노비들을 없애고 그들을 량인으로 만들며 노비의 신분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학자들은 또한 량반지주들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토지를 점차 골고루 가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어느 정도 늦추면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군대도 강화할수 있기때문에 봉건국가가 부강해질것이라고 하였다.

실학자들은 또한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농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실학자들은 국방력도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실학자들의 이 모든 사회개혁리론은 그때로서는 애국적이고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이 리론은 어느것이나 봉건제도를 없애거나 근로하

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나라를 세우려는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문란해진 봉건제도를 바로잡고 봉건국가를 강화하려는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량반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한것이였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학문연구와 활동은 이 시기 나라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2. 《동의보감》과 의학의 발전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의 이름난 의학자인 허준에 의하여 씌여진 백과전서적인 고려의학책이다.

허준은 첩의 아들로 태여나 신분적으로 천대를 받았으나 20대에 뛰여난 의사로 이름을 떨치였으며 여러가지 가치있는 의학책들을 썼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시기부터 15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과 애국적정열을 다 바쳐 1610년 《동의보감》을 세상에 내놓았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그때까지 국내외에서 이룩된 의학의 모든 성과들을 종합분석하고 새롭게 풍부히 하여 독특하게 체계화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나라 약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매 병치료법마다에 우리 나라의 약재로 치료하는 방법을 썼으며 약이름도 우리 글로 써서 인민들이 쉽게 구해쓸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약처방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누구나 쉽게 알고 쓸수 있도록 고쳤으며 인민들이 쓰고있는 간단한 처방과 민간료법들을 널리 수집정리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허준은 또한 《동의보감》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것이 선차이고 약과 침은 그다음이라는 선진적인 예방의학상식을 강조하였다.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의 가장 이름있는 책으로서 우리 나라뿐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차례 출판되여 널리 리용되였다.

이 시기 의학발전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마마)를 막기 위한 종두법을 받아들이고 보급한것이였다.

종두법에 대한 연구는 실학자 정약용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다.

그는 소에게서 마마부스럼딱지를 뜯어내여 어린 아이의 웃팔에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대고 문대주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

로 우두를 놨다.

정약용은 그후 이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실험해본 경험을 자기가 쓴 의학책에 소개하였다. 이것은 무서운 전염병의 하나인 마마를 미리막는데 이바지하였다.

3. 김정호와 《대동여지도》

19세기 중엽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지리학자이며 애국자인 김정호에 의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동여지도》가 출판되였다.

김정호는 평민집안에서 태여나 서울 교외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지리학과 지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였다.

그는 국방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자기 국토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전국적인 지도를 만들것을 봉건정부에 제기하였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이것을 거부하자 그는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김정호는 근 10년동안 실지 답사와 조사연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1834년에 《청구도》라는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청구도》는 여러가지 부족점이 있어 그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 그는 보다 완성된 지도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27년동안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조사연구와 측정사업을 했으며 백두산에도 두번씩이나 오르내렸다.

마침내 김정호는 1861년에 조선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냈다.

《대동여지도》는 16만 2 000분의 1 축척으로 되여있는 33m^{2}나 되는 매우 큰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산봉우리와 산줄기, 강과 호수, 행정구역중심지, 도로, 항구, 장터, 창고, 목장, 관개, 통신 및 군사시설, 력사유적 등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자연의 모든 분야의 자료들이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여있다.

《대동여지도》는 그때 우리 나라 지리와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그러나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은 지도를 만듦으로써 봉건국가의 비밀이 새나가게 하였다는 죄를 들씌워 김정호를 잡아가두어 감옥에서 죽

게 만들었다.

이렇듯 김정호가 오늘의 지도에 거의 가까운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낸것은 우리 나라 지리학, 지도학발전에서 큰 성과이며 자랑이다.

4. 수원성건설과 기중기

18세기말 수원성건설과 기중기의 창안리용은 이 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였다.

수원성은 화약무기의 사용과 임진조국전쟁의 경험을 참작하고 방어와 함께 공격도 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한 우리 나라 중세도시성가운데서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성이다.

수원성의 성벽은 적들이 기여오르지 못하게 허리를 안으로 휘여들게 쌓았으며 화약무기사용을 고려하여 매우 두텁게 하였다.

성에는 동, 서, 남, 북에 각각 큰 문들이 있으며 성문에는 앞을 둘러막는 덧성벽인 옹성이 있다.

성벽우에는 몸을 숨기고 적을 쏠수 있게 만든 1 000여개의 성가퀴를 높이 쌓아 군대가 성벽우로 대오를 짓고 다녀도 보이지 않게 하였다.

수원성은 군사전법상으로 보나 건축기술상으로 보나 우리 나라 중세 성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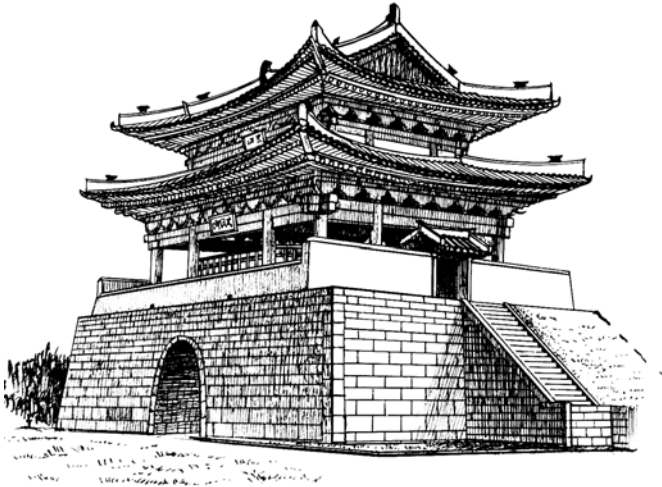
수원성을 건설할 때 우리 인민들은 정약용이 설계한 기중기와 유형차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그때 만든 기중기는 량쪽에 15명씩 서서 물레차를 돌리면 약 7t의 짐을 들어올릴수 있었다. 이것은 한사람이 230kg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린것으로서 보통 5～6배이상의 능률을 낼수 있었다.

유형차는 짐을 운반하는데 편리하게 특히 짐을 싣고 경사지를 올라가기 쉽게 만든 달구지였다. 보통 달구지면 100대로 324일 걸려야 운반할 짐을 유형차로써는 70대로 154일에 다 나를수 있었다.

이 기중기와 유형차는 수원성건설기간을 훨씬 줄이고 성을 튼튼히 쌓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7세기에 대동문을 고쳐쌓는 공사가 벌어졌다.

19m의 높이를 가진 대동문은 웅장하고 무게가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와 그 시기 우리 나라 민족건축술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대 동 문

18세기에는 높은 민족건축술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루정으로서 안주 백상루가 다시 건설되였다.

백상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불탔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다시 훌룡히 복구되였다.

19세기 중엽에 경복궁이 복구되였다.

경복궁은 리조초에 건설되였다가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불타버린것을 1865~1868년사이에 옛 모습대로 다시 지었다. 경복궁의 중심건물은 왕이 정부관리들을 모여놓고 정사를 의논하던 근정전과 궁중연회장인 경회루이다.

근정전과 경회루는 리조시기 건축물가운데서 가장 크고 잘 지은 건축물로서 웅장하고 아름답다.

5. 시가와 민요

17~19세기 전반기 시가문학이 새롭게 발전하였다.

그것은 17세기초에 창작된 다음의 시에서 볼수 있다.

금잔의 향기로운 술은 수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진귀한 음식은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작품에서는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는 량반통치배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원망이 깊이 그려져있다. 이 시는 그후 일부 고쳐져서 소설 《춘향전》에 다시 등장하였다.

이 시기 민요도 크게 발전하였다.

민요는 인민들의 로동생활, 량반통치배들에 대한 증오, 봉건적도덕에 얽매인 녀성들의 불우한 처지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담고있다. 그러한 민요들로는 밭갈이노래, 모내기노래, 마당질노래, 방아타령, 베틀노래, 대장간노래, 풀무노래 등이 있었다.

이 시기 한자시도 발전하였다.

정약용(정다산), 김려, 김삿갓은 그 대표적인 진보적시인들이였다.

정약용의 《적성촌의 오막살이》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있다.

시내가에 찌그러진 집 게딱지 같은데
새바람에 이영 걷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묵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고
허물어진 벽틈으로 별빛이 비쳐드네

김려의 대표적인 작품은 서사시 《방주의 노래》이다.

이 시기 한자시문학에서 이채를 띤것은 김삿갓의 시들이였다.

그는 일생동안 삿갓을 쓰고 방랑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량반들의 썩어빠진 몰골을 재치있게 풍자한 독특한 시작품들을 적지 않게 남기였다.

이와 함께 김삿갓은 《가난한 집》을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에 대하여 동정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찬양하였다.

6. 소설

17～19세기 전반기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특히 국문소설이 발생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임진록》, 《박씨부인전》, 《홍길동전》 등이다.

《임진록》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모습을 애국명장들의 활동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잘 그리였다.

《박씨부인전》은 박씨부인이 뛰여난 지략과 애국적활동으로 청나라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이야기로 엮어졌다.

《홍길동전》은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잘 보여주고있다.

18세기 대표적인 국문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등이였다.

《춘향전》은 량반의 아들인 리몽룡과 《천한》신분인 기생의 딸 춘향사이에 맺어진 사랑관계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으며 량반과 상민사이의 신분적차별을 비판하고 남녀청년들이 재산과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심청전》의 줄거리는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 소경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중에게 속아 절간에 바칠 쌀 300섬에 몸을 팔고 임당수에 빠져죽었다가 다시 살아돌아오는것으로 되여있다.

19세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국문소설은 《배비장전》과 《채봉감별곡》이다.

《배비장전》은 배비장과 그밖의 량반관료들을 등장시켜 겉으로는 점잖은척 하면서 뒤에서는 부화타락한 생활을 하는 량반들의 썩어빠진 몰골을 날카롭게 까밝히였다.

18세기 이후 국문소설과 함께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한문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박지원이 쓴 《량반전》, 《허생전》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한문소설이다.

7. 그 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가운데는 걸작이 많습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그림은 리명욱의 《어부와 나무군》이다.

18세기 대표적인 화가로서는 김홍도, 김두량, 신윤복, 김득신 등을 들수 있다.

김홍도는 벌써 15～16살 때에 재능있는 화가로 알려졌다.

그의 그림가운데서 《대장간》, 《마당질》, 《집짓기》, 《씨름》 등은 널리 알려진 뛰여난 작품들이다.

김두량의 대표적인 그림으로서는 《소몰이군》과 《사계절》을 들수 있다.

이 그림들에는 부지런한 농민들의 생활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제4장.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1절. 대원군의 개혁과 쇄국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지난날의 대원군처럼 쇄국정책을 쓰거나 고립주의로 나가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여서는 안됩니다.》

19세기 60년대 대원군의 정책은 쇄국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1. 대원군의 집권과 나라의 형편

1863년 12월 리조 25대왕 철종이 왕자리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왕족인 리하응의 둘째아들 리명복이 왕(고종)으로 되였다.

그런데 고종은 아직 12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리하응이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였다.

리조시기 왕을 대신하여 나라의 정치를 한 대원군이 몇명 있었으나 우리 나라 력사에서 보통 대원군이라고 하면 리조 26대왕 고종의 아버지 리하응을 말한다.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는 리조봉건국가가 커다란 위기를 겪고있던 시기였다. 봉건통치체제가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지고 나라의 곳곳에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여 봉건제도가 허물어져가고있었다.

한편 나라밖에서는 외래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이 눈앞에 박두하였다.

2. 대원군의 개혁정책

봉건국가가 위기를 겪던 시기에 정권을 쥔 대원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유지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페정쇄신》(낡은 정치를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실시한다는 뜻)의 구호밑에 집권 10년간 여러가지 개혁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그는 우선 60여년간 계속되던 세도정치를 끝장내였다.

1802년부터 어린 왕(순조)을 대신하여 왕의 처가켠이 실권을 쥐고 나라정치를 쥐락펴락하던 세도정치때문에 왕과 왕의 일가친척들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로 되였다. 그리고 돈으로 벼슬을 팔고사는 놀음이 성행하고 각종 명목으로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수탈행위가 극심하여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이러한 세도정치의 후과를 통감한 대원군은 1864년 김좌근을 령의정자리에서 떼버린데 이어 안동김가들을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왕실가문을 기본으로 정권을 새로 꾸리였다.

대원군은 다음으로 왕궁인 경복궁건설공사를 벌리였다.

리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건설한 왕궁인 경복궁은 임진

조국전쟁시기에 불타버렸는데 다시 짓자고 시도하였다가 막대한 돈과 자재때문에 종시 시작하지 못하고있었다.

왕권을 강화하자면 왕궁부터 위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대원군은 경복궁건설공사를 벌리였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다음해에 화재가 일어나 건설재목이 모두 불타버렸다.

그러나 대원군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각종 방법으로 인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찍어 떼목으로 날라들이면서 3년 2개월동안에 공사를 끝냈다.

한편 중앙관청들도 다시 짓고 도성을 쌓아 수도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지방관청건설공사들도 밀고나갔다.

대원군은 또한 중앙집권적통치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였던 서원들을 철페하여버렸다.

당시 지방유생들은 서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한편 나라의 정치에 이러저러하게 간섭하면서 당파싸움에 몰두하였다.

대원군은 봉건유생들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서원가운데서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다.

대원군은 또한 문란해진 3정(전정, 군정, 환정)착취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량반, 부자들이 조세와 군포를 내는데서 요리조리 빠지던 현상을 어느 정도 없애고 환자착취에서도 무질서한 현상을 없앴다.

3정에 대한 량반관료들의 롱간과 전횡을 억제하고 인민들에 대한 수탈체계를 강화하여 나라의 재정적원천을 마련하였다.

대원군은 또한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그는 군대수를 늘이고 지휘체계를 세우며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원군의 이러한 대내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무너져가는 봉건제도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것이였으나 세도정치의 후과를 가시고 외래침략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막아내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3. 대원군의 쇄국정책

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매고 외국과의 일체 관계를 가지지 않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렬강들은 아시아나라들을 자기들의 상품

판매지, 원료원천지로 만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다.

자본주의렬강들은 인디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에 경쟁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우리 나라에도 카톨릭교를 퍼뜨리고 자본주의상품을 들이밀었으며 침략선들을 침입시키였다.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렬강들의 이러한 침략행위에 위협을 느낀 대원군은 우선 자본주의침략의 길잡이인 카톨릭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당시 카톨릭교신자인 황사영이라는자가 중국에 있는 프랑스령사관에 몰래 편지를 띄워 조선에서 카톨릭교를 마음놓고 믿게 하자면 프랑스가 무력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까지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원군은 1866년에 프랑스선교사들과 국내 카톨릭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카톨릭교도들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그후에도 여러해동안 계속되였다.

대원군은 또한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침략자들이 요구하는 개국통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외국상품들이 몰래 들어오는것을 엄격히 단속하였다. 또한 일본이나 청나라에 대해서도 이전의 통치배들처럼 굽신거리지 않고 그들의 내정간섭이 무리할 때에는 그에 맞서는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대원군의 이러한 쇄국정책은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침략을 막고 봉건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쇄국정책은 결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책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행위를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선진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국력을 키울 대신 나라의 울타리만 둘러막음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로 발전하고있을 때 우리 나라는 봉건의 깊은 울타리속에서 량반들이 갓쓰고 하늘소 타고다니는 시대의 흐름에 멀리 뒤떨어진 고립된 나라로 남아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옳바른 대책을 세우자면 자본주의침략을 막는 한편 선진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각 분야에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대원군은 그저 철저한 쇄국정책만 실시하였다.

제2절. 미국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우리 인민은 1866년부터 1871년까지 미국침략자들의 침략을 세차례나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1. 대동강에서 《셔먼》호 격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1866년 우리 인민은 평양 대동강에 기여든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멸하였다.

《셔먼》호는 본래 1861～1865년 미국남북전쟁에 참가한 군함으로서 이 전쟁이 끝나자 악명높은 방면군사령관 셔먼의 이름을 붙인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전투함선이였다.

《셔먼》호는 4문의 포와 근대적저격무기로 무장한 수십여명의 전투인원을 태우고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다.

《셔먼》호가 우리 나라에 침입한 목적은 군함과 대포소리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맺음으로써 략탈적인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이해 7월 7일(양력 8월 중순) 대동강하구에 기여든 《셔먼》호는 다음날부터 대동강을 거슬러오르기 시작하였다.

평양부 관청에서는 관리를 보내여 나라의 법에 외국과의 교역은 금지되였으니 돌아가라고 거듭 요구하였으나 적들은 《교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돌아갈수 없다. 누가 감히 우리를 막겠는가.》고 하면서 갖은 위협과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적들은 저들의 움직임을 살피던 조선군대의 배를 습격하여 2명의 군인을 살해하고 평양감영의 중군 리현익을 《셔먼》호에 잡아가두었다. 그리고는 평양감영에서 중군을 석방할것을 요구하자 쌀 1 000섬과 많은 금, 은, 인삼을 내놓으라고 강도적으로 요구해나섰다.

적들의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참을수 없었던 평양인민들은 《셔

먼》호를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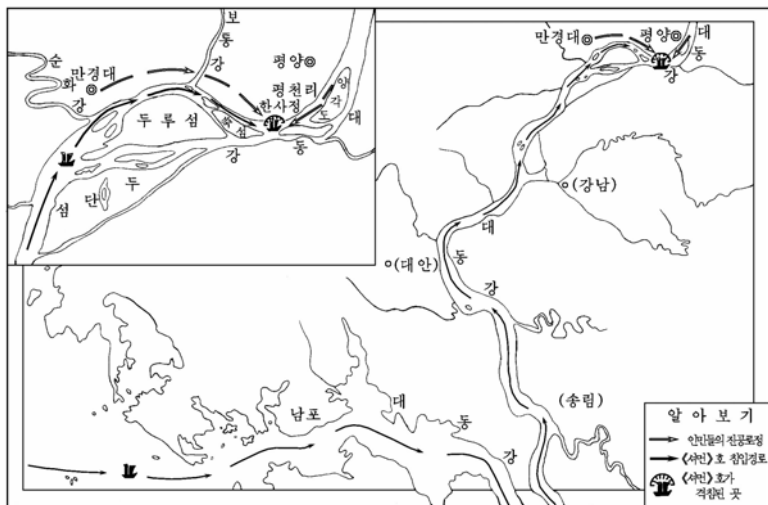
선생님께서는 《셔먼》호가 두루섬까지 올라와 머물렀을 때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의 바줄들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침략선의 앞길을 가로막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그후 《셔먼》호가 양각도에 기여들어 살인, 략탈만행을 감행할 때에는 만경대사람들을 데리고 평양성으로 들어가시여 화공전술로 침략자들을 소멸할데 대한 창발적인 발기를 하시였다.

이때 퇴역장교였던 박춘권은 혼자몸으로 대담하게 《셔먼》호에 뛰여들어 억류되여있던 중군을 구출하였다.

7월 하순 《셔먼》호를 격멸하기 위한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은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결사대원들은 수많은 작은 배들에 나무단을 가득 싣고 류황을 뿌려 불을 붙인 다음 강 웃쪽에서 《셔먼》호쪽으로 떠내려보냈다.

당황한 미국침략자들은 총과 대포를 쏘아대며 급히 도망치려고 서둘렀으나 썰물이 시작되자 강물이 줄어들면서 《셔먼》호는 여울목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였다.

미국침략선《셔먼》호격침도

드디여 수많은 불배들이 《셔먼》호에 가닿자 침략선은 불길에 휩싸여 폭발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 탔던 침략자들은 전멸되고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수장시키기 위한 총공격전은 7월 24일(양력 9월초)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오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그때 《셔먼》호에서 로획한 대포와 닻줄이 있어 미국의 침략력사를 보여주고있다.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하는 평양인민들의 《셔먼》호격멸은 우리 인민의 첫 반미투쟁의 승리로서 미국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의 애국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고 그 이후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2.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의 격퇴

《셔먼》호를 격멸한지 2년후인 1868년에 우리 인민은 또다시 미국침략자들의 침략선을 쳐물리치는 투쟁을 벌리였다.

1868년 3월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가 미해군중좌 페비거의 지휘밑에 3문의 포와 230명의 병력을 싣고 황해도 풍천부(황해남도 과일군) 앞바다에 기여들었다.

적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연해를 오르내리면서 총포를 마구 쏘아대며 대동강으로 침입할 기회만 노리였다.

미국침략자들이 또다시 기여들자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우리 인민들은 또다시 반침략투쟁에 나섰다.

선생님께서는 진지방어전으로 적을 물리칠데 대한 새로운 전법을 내놓으시고 만경대를 비롯한 대동강연안에 견고한 진지들을 굴설하도록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대동강연안의 각 지방 인민들과 애국적인 군인, 선비들이 의용군을 뭇도록 하시였다.

각계층인민들속에서는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때 침략선 《쉐난도아》호가 평양을 침공하려고 대동강을 거슬러 동진포대앞을 통과하려 하자 의용군과 인민들은 강력한 진지에 의

거하여 포와 조총의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불의에 타격을 받은 적들은 더는 기여들 엄두를 못내고 황급히 바다로 빠져 도망치고말았다.

조선인민의 주의가 《쉐난도아》호에 쏠리고있던 4월 16일 젠킨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300여명의 미국무장강도단이 침략선 《챠이나》호를 타고 충청도 아산만에 기여들었다.

4월 19일 적들은 조선사람들에게서 빼앗은 2척의 배와 저들의 발동선 《크레타》호에 나누어타고 덕산군 가동에 기여들어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파기 시작하였다.

이에 격분한 가동주민들은 물론 주변각지의 산포수들과 군인들도 가동에 몰려왔다.

적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무덤을 파제끼지 못한채 인민들의 반격에 겁을 먹고 《챠이나》호로 도망치고말았다.

남연군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훔쳐낸 다음 그것을 미끼로 대원군에게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강요하려던 초기의 계획이 실패하자 적들은 영종도(인천앞의 섬)의 관리 신효철에게 봉건정부에 저들의 협박장을 전달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적들은 협박장에서 남연군묘를 판것은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기보다 나은것이기때문에 한것이니 자기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재미없을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신효철이 그 협박장을 전달하지 않고 적들의 강도적죄행을 단죄하자 적들은 영종도에 기여올라 로략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종도안의 군대와 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는 다음날 도망치고말았다.

그러자 《챠이나》호의 기미를 지켜보던 《쉐난도아》호도 마침내 대동강하구에서 도망치고말았다.

3. 1871년 《신미양요》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의 침입을 물리친지 3년후인 신미년에 우리 인민은 또다시 미국침략자들의 대규모침략을 물리쳤다. 이것을 《신미양요》라고 한다.

미국침략자들은 1871년 1월 조선봉건정부에 협박장을 보내여 《셔먼》호를 격침시킨 책임을 운운하면서 만일 불평등조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조선측에서 질줄 알라고 을러멨다.

이에 대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셔먼》호의 격침은 응당한것이며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침략자들은 4월 8일 5척의 군함과 80문의 포, 1 230명의 침략군으로 된 침략함대를 강화도 남쪽 물치도부근에 침입시켰다.

며칠후 적들은 2척의 군함과 4척의 소함정으로 강화해협의 손돌목에 침입하였다. 손돌목을 지키던 조선군인들은 집중포화를 들씌워 적들의 주력함 《모노카시》호를 격상시키고 적들을 격퇴하였다.

손돌목에서 첫 타격을 받은 적들은 강화도부터 강점하려는 흉계밑에 45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남쪽의 중요요새인 초지진에 달려들었다.

리렴이 지휘하는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야간기습전을 벌려 100여명을 살상하고 적들을 물리쳤다.

미국침략자들은 다음날 또다시 500여명의 병력으로 광성진을 3면으로 둘러싸고 미친듯이 공격해왔다.

어재연이 지휘하는 70여명의 광성진수비병들은 근 10배나 많은 적들을 맞받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이 전투에서 어찌나 큰 타격을 받았던지 침략의 우두머리 로우는 본국에 보내는 보고에서 《조선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싸울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의 용감성은 일찌기 볼수 없었던것으로 세계 어느 민족도 조선사람의 용감성을 따를수 없을것이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 시기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반침략기세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 곳곳에는 《척화비》들이 세워졌다. 이 비에는 《서양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것은 나라를 파는것이다. 병인년(1866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년(1871년)에 비에 새겨 전국에 세운다. 우리의 천만년 자손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노라.》고 씌여있었다.

우리 인민은 거듭되는 미국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투쟁을 통하여 적들의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애국적인 기상과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제3절. 프랑스침략자들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1866년 우리 인민은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멸하는것과 함께 프랑스침략자들의 대규모침략을 물리쳤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

이해 1월 대원군은 카톨릭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도 9명이나 처단하게 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노리던 프랑스침략자들은 이것을 구실로 무력침공의 길에 나섰다.

침략의 두목은 프랑스극동함대사령관 로즈였다. 로즈는 8월 12일 3척의 군함으로 강화도 남쪽 물치도부근에 기여들었다. 적들은 어리석게도 이만한 무력이면 조선쯤은 능히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망상하였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없이 한강을 거슬러 서울가까이까지 올라오면서 정탐행위와 위협사격을 하였다.

나라앞에 엄중한 위험이 닥쳐오자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인민들의 드높은 반침략기세에 겁을 먹은 프랑스침략자들은 저들의 그 무력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도망치고말았다.

리조봉건정부는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기세에 힘을 얻어 적들이 쫓겨간 틈을 리용하여 서울과 한강류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다.

쫓겨갔던 프랑스침략자들은 9월 5일에 7척의 군함에 2 500여명의 병력을 싣고 또다시 물치도에 침입하였다.

이때 적들은 먼저 강화도와 그 일대를 눌러놓은 다음 서울로 침입하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강화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면서 강화도로 기여올랐다. 적들이 강화도의 중심지인 강화성에 접근하자 강화류수를 비롯한 통치배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말았다.

이때 강화성의 인민들은 적들과 맞서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우세한 적을 막아낼수 없었다.

강화성을 강점한 적들은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옛 건물들과 성을 마스고 귀중한 문화재들과 무기, 식량, 귀금속들을 마구 략탈하였다.

프랑스침략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선교사 9명을 죽인 대신

조선사람 9천명을 죽이겠다고 을러대면서 프랑스선교사들을 처단하는데 관계한 조선봉건정부대신들을 저들에게 넘기고 배상금을 물며 불평등조약을 맺을것을 봉건정부에 요구해나섰다.

프랑스침략자들의 침입과 만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온 나라 인민들은 놈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전국각지에서 의용병들이 무어졌으며 한강일대에는 며칠사이에 4천여명의 인민들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 집결하였다.

한편 후방인민들은 쇠붙이를 모아 밤낮으로 병쟁기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강연안에 방어시설들을 만들고 적들의 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강우에는 떼목을 가로지르고 강바닥에는 배들을 가라앉혀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자 침략자들은 한강이 아니라 륙지로 서울에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적들은 우선 강화도 맞은편의 통진을 점령하고는 거기에 의거하여 문수산성에 달려들었다. 문수산성은 륙로를 통하여 서울로 들어가는 첫 대목에 있는 중요한 요새였다. 바로 여기에서 프랑스침략자들과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문수산성에 달려든 적들은 160여명이였는데 성의 방어군은 불과 50명정도였다. 그러나 방어군은 동요하지 않고 한성근의 지휘밑에 적들을 맞받아침으로써 절반이상의 적들을 쓸어눕히였다. 적들이 나머지 력량을 그러모아 또다시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방어군은 결사전을 벌려 적들을 격퇴하고야말았다.

문수산성에서 패배를 당한 적들은 륙로로도 도저히 서울을 침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강이나 륙로로 서울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미 강점한 강화성에 의거하여 강화도라도 완전히 타고앉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도밑에 적들은 강화도의 중요한 요새인 정족산성으로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두번째로 큰 싸움이 정족산성에서 벌어졌다.

적들의 기도를 미리 알아차리고 정족산성에 진출한 량헌수가 지휘하는 500여명의 우리 방어부대는 미리 성의 동문밖에 매복하고있다가 마음놓고 기여드는 적들에게 불의에 강력한 사격을 들이댔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수다한 전투기재들과 군량을 집어던진채 뿔뿔이 도망치고말았다.

첫 전투에서 패한 침략자들은 이틀후에 또다시 160여명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이날도 조선군대는 산성에 의거하여 맹렬한 사격을 퍼부어 적들을 쓸어눕혔다.

살아남은 적들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방어군은 성문밖으로 달려나와 적들을 추격하여 치명적타격을 주었다. 패배를 거듭한 적들은 강화섬에 불을 지르고 갖은 만행을 한 후 바다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덕포진에서 대기하고있던 우리 포병들은 적들의 군함에 맹렬한 포사격을 퍼부었다. 겨우 바다로 빠져나간 프랑스침략자들은 더는 연해에 접근하지 못하고 먼바다에서 빙빙 돌다가 완전히 물러가고말았다.

이리하여 《조선이 프랑스선교사들에게 손을 댄 날이 조선의 마지막날》이라고 하면서 많은 함대와 수천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던 프랑스침략자들도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우리 인민은 다시한번 반침략투쟁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제4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1. 민비일파의 정권장악과 일본의 침략야망

1873년 11월에 대원군은 자기의 며느리이며 왕비(고종의 안해)인 민비일파에게 정권을 빼앗기였다.

10년전 왕비로 된 민비는 자기의 양오빠인 민승호를 병조판서자리에 올려앉힌데 뒤이어 민가일족들을 하나하나 중앙과 지방의 주요관직에 다 올려놓았다. 그리고 대원군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있는자들을 규합해나갔다.

드디여 1873년 10월 최익현이 대원군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낸것을 계기로 대원군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10년동안 정치적지반을 굳게 다진 민비일파에게 대원군은 견디여내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기였다.

정권을 가로챈 민가일당은 대원군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어엎었다.

서원을 되살리고 자본주의상품이 쓸어들게 하였으며 큰 나라들에

아부굴종하였다.

특히 일본에 대한 비굴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한 대원군의 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한 경상도관찰사 김세호, 동래부사 정현덕을 철직시켰다.

지어 조일관계가 나빠진 책임을 왜학훈도 안동준에게 넘겨씌우고 그의 목을 잘라 왜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왜관앞에 높이 달아매놓는 비굴하고 악독한 배족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평양과 강화도에서 벌린 미국, 프랑스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투쟁들을 우리 나라가 잘못한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모독하였다.

민가일당의 사대투항주의적, 매국배족적책동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을 더욱 돋구어주었다.

1868년에 이른바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부르죠아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생겨난 첫날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명치유신후 군사파쑈적, 침략적일본자본주의를 군국주의라고 한다.)

침략자들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조선침략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던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끝장나고 민비일당의 비굴한 대일굴종정책이 실시되자 왜놈들은 강도적인 무력침공의 길에 들어섰다.

2. 《운양》호사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 4월부터 《운양》호를 비롯한 군함들을 우리 나라의 부산과 원산 등 항구들에 들여보내여 조선동해안과 서남해안일대를 싸다니면서 군사연습과 무력시위, 정탐행위를 감행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민비일당이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자 침략자들은 더욱 횡포해지고 오만무례해졌다.

이해 8월 함장 이노우에는 서울의 관문이며 군사요충지인 강화도에 대한 무력침공임무를 받고 《운양》호를 끌고 월미도 앞바다에 기여들었다가 다음날에는 강화도에 바싹 접근하였다. 그리고 20여명의 졸

병들을 초지진포대에 접근시켜 그 위력을 정찰하며 륙전대로써 포대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아무 예고도 없이 불의에 포대에 접근해오는 외래침략군을 발견한 조선포병들은 적들에게 포탄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응당한 주권국가의 자위적조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포병들의 사격을 《예견하고 바라던 포격이였다.》고 환성을 지르면서 본격적인 침략의 불을 질렀다.

《운양》호는 저들의 국기와 군함기를 단 다음 초지진포대에 미친듯이 포격을 감행하였다.

적아간에 2시간이상이나 벌어진 격전끝에 적들은 일단 제압되였다.

이튿날 《운양》호의 침략자들은 보복적으로 아무 군사방어시설도 없고 평화적주민들만 있는 항산도를 불의에 습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죽이고 집들을 불살랐다.

다음날에는 6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영종진 앞바다에 《운양》호를 띄워놓고 함포사격으로 포대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성안에 기여들었다. 적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학살하고 영종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이것이 《운양》호사건이다.

3. 《강화도조약》의 조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이 일본국기를 모욕하였다.》느니, 《일본을 모욕한 조선을 징벌할 기회가 일시에 도래하였다.》느니 하면서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이때 미국침략자들은 저들이 지난날 일본을 침략하여 예속시키던 때 써먹은 수법을 쓴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라는 책을 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부추기였다.

력사적으로 미제는 일본을 조선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었고 일제는

미제를 등에 업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다.

1875년 12월 일본정부는 구로다를 전권대신으로, 이노우에를 부대신으로 임명하고 7척의 군함과 800명의 침략군을 주어 부산에 기여들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조선봉건정부에서는 싸움을 주장하는 파와 화의를 주장하는 파의 론쟁이 벌어지다가 결국 투항주의적민가일파에 의하여 적들과 담판을 하기로 하였다.

1876년 1월에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윤자승을 전권부관으로 하는 조선측과 일본측과의 담판이 강화도의 련무당에서 벌어졌다.

구로다는 처음부터 《운양》호사건에 대해 사죄하라느니, 저들이 제멋대로 만든 조약문에 도장을 찍으라느니, 10일안에 대답을 안하면 무력행사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위협하였다.

조선대표 신헌은 그 부당함을 까밝히고 금칙 6개조라는 조선측의 요구를 강경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부패무능한 민가무리의 통치배들은 나라와 인민은 어떻게 되든 저들의 봉건통치와 부귀영달만 생각하면서 적들의 위협공갈에 굴복하고말았다.

이리하여 1876년 2월 3일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라는 《강화도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

조약에서 일본침략자들은 부산과 그밖의 두개 항구에 머물러살면서 략탈적인 무역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것, 조선에 일본령사를 두고 왜놈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처리한다는것(령사재판권, 치외법권), 조선연해를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일본땅에 들어가서 그 무엇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것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완전히 예속적이며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는 점차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다.

《강화도조약》을 조작한 일본침략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부산, 원산, 인천 등 항구들에 무리로 쓸어들었다.

군함을 몰고와 무력시위와 정찰을 하고 서울에도 공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장사군들은 시시한 일본꽃병 한개를 가지고와서 조선소 3마리 또는 쌀 75말을 빼앗아가는 판이였다. 천, 옷, 거울, 도자기, 성냥, 물감, 과자, 사탕 등 자본주의 일본상품이 막 쓸어들어 우리 나라의 금은보화와 농산물을 마구 략탈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를 파국에로 밀어갔다.

우리 인민은 《강화도조약》의 조작과 그후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일본침략자들이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고들어와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때 인민들은 침략자들과 싸울것을 주장하여 상소를 하고 의용병을 조직하여 강화도로 달려오고 군수물자들을 모아보냈다.

자기들의 투쟁열의가 이처럼 높은데도 조약이 끝내 조작되자 인민들은 부산에 있는 왜놈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왜놈사신단이 지나갈 때는 시위를 벌리였으며 기와장과 돌을 던지며 투쟁을 벌리였다.

부산뿐아니라 서울, 인천, 원산, 안변 등 왜놈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적들을 습격처단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1881년 경상도선비들이 국왕에게 상소를 낸데 이어 각지의 애국적인 선비, 관리들은 련달아 일본의 침략과 《강화도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침략의 첫 시기부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제5절. 임오군인폭동

임오군인폭동은 1882년에 서울의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민비일파를 정권에서 몰아내고 일본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사건이였다.

임오군인폭동은 날로 강화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와 민비일파의 반인민적폭정에 대한 인민들과 군인들의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1. 외래자본주의침략의 강화

《강화도조약》조작후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였다.

미국침략자들도 1882년에 《강화도조약》과 다름없는 강도적인 조약인 《조미조약》을 강요하였으며 뒤이어 영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유럽자본주의렬강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의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이 세력권을 다투는 란무장으로 되였으며 민족경제가 파국적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그런데도 민비일파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탕진하면서 부화방탕한 생활만 일삼았다.

2. 서울군인들의 생활처지

당시 서울에 있던 군인들은 빈민출신들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대가로 매달 얼마 안되는 군료(군인들에게 주는 봉급)를 받아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살리였다.

그런데 민비일파는 인민들에게서 수탈한 돈과 식량으로 자기들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군인들에게는 군료를 몇달씩이나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처지는 점점 어려워졌다.

게다가 민가통치배들은 새로 조직된 별기군에 일본장교 호리모도를 군사교관으로 끌어들여 그자에게 훈련지휘권을 맡겼다. 일본인군사교관은 별기군과 이미 있던 군대사이에 쐐기를 박아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였다.

그런데다가 리조봉건정부는 별기군에 대해서는 높은 대우를 하면서도 국가무력의 주력인 이미 있던 군대에 대하여서는 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

이리하여 군인들속에서는 민비일파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불만과 반항기세가 나날이 높아져갔다.

3. 폭동의 동기－군료지불사건

나날이 커가는 군인들의 불만을 누잦히기 위해 봉건정부에서는 6월초에 13개월만에 처음으로 한달분의 군료를 쌀로 내주었다. 그런데 그 쌀은 대부분 썩은 쌀인데다가 겨와 모래가 절반이상 섞이고 그나마 량이 차지 않은것이였다. 이것은 민비일파와 그 앞잡이들이 중간에서 국가창고의 좋은 쌀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나쁜 쌀을 눅은 값으로 사서 바꾸어넣거나 떼여먹고 모자라는 량을 겨와 모래로 채워넣었기때문이였다.

이에 격분한 군인들은 군료를 내주던 창고지기를 때려눕히고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들고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병조판서 민겸호는 투쟁의 앞장에 섰던 군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사형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드디여 군인들의 쌓이고쌓였던 분노가 터져 대규모의 군인폭동으로 번져졌다.

4. 폭동과정과 폭동의 실패

1882년 6월 9일 서울군인들은 류춘만, 김장손의 지휘밑에 폭동에 떨쳐나섰다.

폭동군인들의 타도대상은 민비를 비롯한 반동관료들과 일본침략자들이였다.

폭동군인들은 무기고를 까부시고 무장을 갖춘 다음 감옥을 습격하여 죄없이 갇힌 군인들과 인민들을 석방하였다. 그들은 두 대오로 갈라져 투쟁을 확대하였다.

한 대오는 《일본공사관을 치자!》, 《일본침략자들을 내몰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일본공사관으로 밀려갔다. 그들은 일본공사관을 겹겹이 에워싸고 돌을 던지고 총과 활을 쏘면서 기세를 올렸다.

여기에 겁을 먹은 일본공사관놈들은 움쩍 못하고 박혀있다가 밤이 되자 자기들 손으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어둠을 타서 인천으로 도망쳤다.

폭동군의 다른 한 대오는 민가일당과 통치배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여 파괴하고는 별기군병영으로 달려가 별기군군인들과 합세한 다음

일본교관을 처단하였다.

폭동군인들은 다음날 민비를 처단하기 위하여 창덕궁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거기에 숨어있던 병조판서 민겸호를 처단하였으나 민비는 궁녀의 옷을 갈아입고 충주 장호원으로 도망쳤으므로 놓치였다.

폭동군인들은 다시 여러 대오로 나뉘여 민가일당과 그 앞잡이들, 악질장교들의 집을 모조리 습격파괴하였다.

한편 폭동군의 한 대오는 도망친 일본침략자들을 뒤쫓아 인천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일본침략자들을 습격하여 10여명을 처단하였다. 나머지 일본놈들은 황급히 영국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이렇게 민가세도정권은 무너지고 일본침략자들은 서울에서 쫓겨났다. 그리하여 군인폭동은 일단 승리하였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그다음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들은 대원군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일도 바로잡히고 군인들의 처지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였다.

고종은 대원군에 대한 군인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환상을 리용하여 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얼리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옛날제도를 다시 복구하면서 폭동군인들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꾸려나갔다.

이러한 때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에서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저들의 세력이 밀려날수 있다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무력간섭을 시작하였다.

한편 민비는 충주 장호원에 숨어있으면서 청나라군대를 끌어들여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군인폭동을 진압할 음모를 꾸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882년에 서울에서 군인들의 대규모적인 반침략반봉건투쟁이 폭발하였을 때 민가무리는 청나라군대를 끌어들여 군인폭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6월 27일 청나라통치배들은 4척의 군함과 13척의 수송선에 3000여명의 병력을 싣고 서울에 기여들었다.

6월 29일에는 일본침략자들이 군함을 끌고 인천에 기여들었다.

청나라간섭자들은 대원군을 붙잡아 자기 나라에 강제로 끌어가고 폭동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을 탄압하여나섰다.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

들은 적들을 맞받아 이틀간이나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진압당하고말았다.

임오군인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일본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후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제5장.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죠아개혁

제1절.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

1. 개화사상의 발생

19세기 중엽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진보적사상인 개화사상이 발생하였다.

개화사상은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발전된 자본주의제도를 세워 나라를 부강발전시키자는 사상이였다.

개화사상은 19세기 중엽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이 시기 리조봉건국가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었다.

무엇보다 안으로는 봉건제도가 점점 무너져감으로써 위기가 조성되였다.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게 된것은 우선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였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은 낡은 봉건시대의 법과 신분제도를 없어지게 하였다.

례하면 개인들이 광산업을 못한다던 법은 없어지고 개인광산업이 급속히 장성하여 나중에는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한것이다.

수공업, 상업부문에서도 그러한 법이 점점 없어져갔다.

신분제도 역시 타고난 혈통에 따라 량반, 상민을 갈라왔는데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으로 혈통에 관계없이 돈많은 사람이 량반신분을 사서 량반행세를 하는가 하면 실지 량반도 돈이 없으면 상민과 다름없게 되였다. 결국 신분제도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되여갔다.

이처럼 봉건시대의 법이 점차적으로 없어짐으로써 봉건제도는 무너져가게 되였다.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게 된것은 또한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기때문이다.

60여년간 계속된 세도정치는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었다.

인민들은 1862년 진주농민폭동이후에도 각지에서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이것은 봉건제도를 무너져가게 만들었으며 결국 봉건국가는 위기를 겪게 되였다.

다음으로 이 시기 봉건국가는 외래자본주의침략으로 위기를 겪고있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로씨야, 일본 등 자본주의침략자들이 저마다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침략자들은 카톨릭교선교사들을 조선침략의 길잡이로 들여보내여 카톨릭교를 퍼뜨리고 간첩활동을 하면서 침략의 길을 닦게 하였다.

이와 함께 무장침략선들을 빈번히 들여보내여 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중엽 리조봉건국가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었지만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장래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부패타락해졌다.

이 시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장을 세우고 기계로 물건을 만들며 철도를 놓고 기차와 기계배를 만들면서 발전하고있는데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앉아서 시나 읊고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빨리 발전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옛날그대로 량반이니, 상민이니 하면서 신분만 따지고 더 많은 땅을 제 땅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수천년동안 해오던 농사밖에 모르니 공업과 기술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추세에서 멀리 뒤떨어질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가고있던 시기에 뜻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조성된 위기를 가시고 나라를 부강발전시킬 방도들을 탐구해나갔다.

그 선구자들은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이였다.

오경석은 통역관으로서 20대에 사신을 따라 중국에 오고가면서 그곳에 들어온 자본주의의 근대적인 문화와 기술에 대하여 알게 되고 뒤떨어진 조국의 현실과 대비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의관인 류홍기 역시 오경석이 구해온 새로운 책들과 새 지식에 접하게 되면서 세계가 자본주의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추세를 알게 되였다.

그들은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뒤떨어진 봉건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외래자본주의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리라는것을 인식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일대 변혁을 일으켜 나라가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제도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바로 이 사상이 개화사상의 싹이였다.

이러한 때 진보적인 봉건관리였던 박규수도 오경석, 류홍기와 접촉하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는 이름난 실학자였던 할아버지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개화사상은 실학사상을 연구하고 그 진보적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하였다.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에 의하여 185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개화사상은 70～80년대에 김옥균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충청도 공주의 량반집안에서 태여난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매우 총명하였다.

그는 11살 소년시절에 정약용(정다산), 박지원 등 실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봉건제도가 빚어내는 사회악을 알게 되였다.

그는 서울에서 량반들이 사는 북촌에 살면서도 량반, 상민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맹렬하게 접촉하여 나라안팎의 정세를 더 잘 알게 되였다.

김옥균은 진보적인 학문연구와 현실체험과정에 민족앞에 닥쳐온 위기를 가시고 나라를 발전시키자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열렬한 지향을 가지게 되였다.

김옥균이 20살 때인 1870년경 그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있던 류홍기가 자본주의문물제도에 대하여 쓴 책들을 김옥균에게 주어 읽게 하였다.

이 시기 류홍기와 김옥균은 자주 만나 근대적개혁의 절박성을 이야기하군 하였다.

김옥균은 박규수의 집도 자주 찾아가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실학사상의 진보적측면들을 배우고 세계추세와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갔다.

김옥균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화사상의 대표자로 되였다.

개화사상은 그 진보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화사상은 봉건제도를 반대하고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사상이였다.

개화사상은 우선 정치분야에서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는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산업을 건설하자고 하였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하며 락후한 봉건풍습을 없애고 녀성들의 사회적대우를 개선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개화사상은 국방분야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며 봉건적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하였다.

이처럼 개화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선진적인 계층의 지향을 반영하여나온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였다.

그러나 개화사상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였다.

그것은 개화사상이 결국은 봉건제도대신 자본주의제도를 세우자고 한 부르죠아사상의 한 조류였다는데 있다. 뿐만아니라 개화사상은 부르죠아사상으로서도 철저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으려 하지 못하였으며 봉건국왕과 토지제도도 그대로 두려고 한데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화사상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지였으나 그후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부르죠아개혁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2. 개화파의 형성

개화사상이 나온 후 개화사상가들은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김옥균은 22살에 과거시험을 1등으로 합격하여 단번에 홍문관교리, 사간원 정언 등 중앙정부의 높은 벼슬도 하면서 나라의 근대적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정치세력을 꾸리기 위한 비밀정치활동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그는 봉건정부안의 홍영식, 박영교 등 진보적인 관리들과 선비들, 군인들과 자본가들, 천민들과 궁녀, 내시 등 각계층사람들을 개화사상의 공감자, 지지자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1870년대초에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사상가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였다. 이들을 개화파라고 하였다.

반대로 낡은 봉건제도를 유지하려고 한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을 수구파라고 불렀다.

개화파와 수구파, 이것이 앞으로 부르죠아개혁운동에서 진보와 반동의 대표적세력이였다.

개화파가 형성된 후 그들은 자기세력을 넓혀나가는 과정에 충의계라는 비밀조직을 무었다.

이것은 개화파의 핵심조직으로서 부르죠아개혁운동을 밀고나가기 위한 비밀정치조직이였다.

3. 개화파의 초기활동

개화파는 사람들에게 세계발전추세와 뒤떨어진 나라의 형편, 이로부터 부르죠아개혁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가지 책을 써서 선전하였다.

김옥균이 쓴 《기화근사》, 박영교가 쓴 《지구도경》 등은 다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정세를 알려주고 나라의 근대화를 주장함으로써 개화사상선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개화사상은 여러 계층속에 퍼지고 개화파세력은 국가정치에 영향을 줄만큼 자라났다.

이렇게 자라난 개화파는 혁신관리들을 추동하고 왕을 설복하여 봉건국가기구를 근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사업을 밀고나갔다.

그의 대표적인 실례가 1880년 12월에 근대적인 중앙행정기관 정부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을 조직하고 그 아래에도 역시 그에 맞는 행정기구들을 내온것이였다.

개화파는 군사기구도 근대적으로 고치고 새로운 별기군을 조직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 류학생, 실습생, 시찰단을 보내고 과학도서와 기계, 실험기구, 신식무기도 사오게 하였다.

개화파는 자본주의침략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고치며 청나라의 간섭을 막기 위한 활동도 벌리였다.

그러나 봉건정부안에서 실권을 잡고있던 수구파는 나라의 근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개화파의 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제2절. 갑신정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갑신정변은 궁중에서 일어난 단순한 권력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근대화를 목적한 부르죠아개혁이였습니다.》

1884년 10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부르죠아개혁활동이 수구파반동들의 책동으로 더는 실현해나갈수 없게 되자 폭력으로 수구파정권을 뒤집어엎는 정변을 일으키였다. 이 정변을 갑신정변(1884년 부르죠아개혁)이라고 한다.

1. 정변전 개화파의 개혁활동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단행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낡은 국가기구를 개편도 하고 새로 내오기도 하여 부르죠아개혁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먼저 1882년에 정부안에 개혁담당기구로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관을 조직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관리들과 재정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감생청이라는 기구도 내왔다.

그밖에도 순경국, 우정국, 박문국, 대동상회 등 여러가지 근대적인 기관들과 회사, 신식군대도 조직하고 《한성순보》라는 첫 근대적인 신문까지 찍어냈다.

이처럼 개화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르죠아개혁사업이 추진되자 이에 겁을 먹은 수구파반동들은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화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놈들은 개화파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주요인물들을 벼슬자리에서 떼여 지방으로 쫓아내거나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보냈다. 또 개화파들이 양성한 신식군대를 해산하여 저들이 통제하던 부대에 속하게 하였다.

지어 수구파반동들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자들을 비밀리에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개화파들은 오직 폭력의 방법으로 수구파정권을 뒤집어엎는 길만이 부르죠아개혁을 수행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2. 갑신정변

1884년 10월 17일 이날 저녁 개화파지도자의 한 사람인 홍영식이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정부의 여러 고관들과 미국, 청나라, 영국, 일본 등 외국대표들까지 초청하였다.

연회가 시작되여 거의 끝나갈무렵인 밤 10시 갑자기 연회장밖에서 《불이야!》하는 웨침소리와 함께 한 건물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타올랐다.

연회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려하는데 벌써 선참으로 달려나갔던 수구파우두머리의 한 사람인 민영익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연회장안으로 들어와 쓰러졌다.

연회장안은 일대 수라장이 되였다.

이때 창덕궁에 있는 국왕 고종을 찾아간 개화파지도자 김옥균은 《청나라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빨리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다.

왕이 들으니 정말 밖에서는 쾅쾅 폭음이 일고 불길이 타오르는데 큰 사변이 일어난것이 분명하였다.

왕과 민비는 큰 위험을 느끼고 개화파들이 하자는대로 경우궁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이때 개화파는 일본공사 다께소에와 이미 약속한대로 100명의 일본군을 경우궁밖의 경비에 동원시키였다.

이러한 사변이 일어나자 나라의 무력을 통솔하던 윤태준과 한규직, 리조연 등 세명의 수구파우두머리들이 국왕을 찾아 경우궁으로 달려왔다.

이때 김옥균이 그들을 호되게 꾸짖어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밖으로 쫓겨나오자 개화파의 무장성원들이 모두 처단해버렸다.

김옥균은 이어 민태호, 민영복, 조녕하 등 수구파우두머리들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게 하였다.

이렇게 개화파는 국왕을 장악하고 정부의 수구파우두머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가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개화파의 정변이였다.

수구파정권을 뒤집어엎은 개화파는 곧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령의정으로는 고종의 4촌형인 리재원을, 좌의정으로는 개화파지도자의 한 사람인 홍영식을 두고 다른 중요한 자리들도 김옥균, 박영교 등 개화파가 다 차지하였다.

개화파는 10월 18일 아침 《조보》(정부의 신문)를 통하여 새 정부가 섰다는것을 세상에 알리였다.

이어 19일에는 새 정부의 과업을 밝힌 정강을 발표하였다.

정강은 먼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며 봉건국왕의 무제한한 권한을 줄일것을 밝혔다.

또한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며 관리는 재능과 기술을 보고 선발한다는것, 산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등 사회문화분야와 재판, 경찰제도, 군대제도 등 모든 분야를 락후한 봉건적인 것으로부터 근대적으로 개편하며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밝혔다.

이처럼 정강은 나라를 뒤떨어진 봉건사회로부터 보다 발전된 자본주의길로 이끌어가려고 한 진보적인 부르죠아적정강이였다.

새 정부가 구성되자 그것을 본 수구파반동의 우두머리 민비는 이 사변이 누구를 반대하는 정변인가를 알아챘다.

민비는 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한 간계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는 경우궁은 좁고 불편하니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가자고 왕을 꼬

드겼다.

국왕을 장악한 새 정부가 넓은 창덕궁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들의 무력공격을 막아내기 힘들것이였다.

민비는 이것을 노리고 고집을 부린것이였다.

그러나 개화파는 민비의 잔꾀를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국왕과 새 정부를 리재원의 집인 계동궁에 옮기였다. 그런데 민비는 몇시간도 안되여 또다시 창덕궁으로 옮기자고 앙탈을 부렸다.

이때 일본공사 다께소에는 청나라군대의 공격이 있다 해도 저들의 100여명 무력이면 막아낼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민비와 국왕의 편을 들었다.

민비와 다께소에의 술책으로 국왕은 드디여 창덕궁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이때 개화파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것은 커다란 잘못이였다.

국왕과 개화파정부가 창덕궁으로 자리를 옮기자 민비의 꼬드김을 받은 수구파잔당들이 청나라 침략자들과 함께 개화파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10월 19일 오후

드디여 1 500여명의 청나라침략군이 수구파잔당들과 함께 창덕궁을 포위공격해왔다.

이렇게 되자 김옥균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3일동안 왕궁을 지키는데 협력하겠다던 일본놈들은 청나라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면서 개화파를 배반하고 모두 도망치고말았다.

그리하여 100여명의 개화파무력은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15배나 되는 적들과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세는 개화파에게 점점 불리해졌다.

개화파의 군대는 하나, 둘 자꾸만 쓰러져갔다. 이제는 더이상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게 되였다.

드디여 왕궁은 적들에게 점령되고 국왕은 다시 수구파반동들의 손에 들어갔다.

마지막까지 싸우던 홍영식을 비롯한 수많은 개화파성원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개화파인물들은 다시 일어날것을 결심하고 인천으로 피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리하여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실패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되지 못한데 있었다.

개화파들은 인민대중을 깨우쳐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봉건제도를 완전히 뒤집어엎지 못하고 국왕을 끼고 개화파세력과 진보적인 관료들이 정권을 잡아 국가기구를 뜯어고치려고 한데 있었다.

당시의 조건에서는 농민이 착취받고 압박받는 기본대중이였던것만큼 그들을 불러일으켜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지도자들은 량반관료출신으로서 계급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아직 미숙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한것은 또한 전술적으로도 잘못한것과 함께 미일침략자들의 방해책동과 청나라침략자들의 무력간섭에 있었다.

갑신정변은 우리 나라에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하려고 한 부르죠아개혁이였다. 따라서 이 정변의 조직자인 김옥균은 우리 나라를 개명시키려고 한 부르죠아개혁운동자였고 애국자였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부르죠아개혁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갑신정변은 그후 부르죠아개혁운동을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제3절. 갑오농민전쟁

1. 갑오농민전쟁은 아시아 3대항전의 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세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것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조선력사상 가장 큰 농민전쟁으로서 류례없이 대규모적이고 격렬한 반제반봉건적투쟁인것으로 하여 아시아 3대항전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농민전쟁은 1894년부터 거의 1년동안 20여만의 농민군이 참가하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는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등 조선 8도강산을 거의나 뒤흔들어놓았다.

전쟁기간 농민군은 전라도, 충청도에서만도 고부, 장성, 목천, 공주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대포를 비롯한 근대적무장으로 장비된 수백수천의 적정규군대를 살상하였다. 다른 도들에서도 농민군은 수많은 원쑤들을 족쳐댔다. 농민군은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를 타고앉았으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지방통치체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농민군을 도저히 이길수 없었던 봉건정부는 그앞에 굴복하여 페정을 고칠데 대한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였다.

농민군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군과 함께 청나라군대와 1만명의 일본침략군까지 기여들어 횡포한 무력간섭을 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1811～1812년의 평안도농민전쟁,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12세기 망이농민폭동을 비롯한 대농민전쟁, 9세기 후기 신라에서의 농민전쟁 등 많은 농민전쟁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갑오농민전쟁처럼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던것이다.

2. 농민전쟁의 시작

간악한 수탈자 조병갑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리조 순조왕의 며느리이며 효명세자의 안해인 조대비의 친척으로서 그 권세를 등대고 별의별 악착한 짓을 다해가며 고부군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이자는 농민들에게 묵은 땅을 개간한데서는 전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가을에 가서 엄청난 전세를 빼앗아냈다.

또 대동미는 토지 한결에 12말씩 내게 되였는데 16말씩을 돈으로 계산해서 받아냈다. 그리고는 나쁜 쌀 12말을 사서 국가에 바치고 나

머지는 떼먹었다.

해마다 수백수천의 농민들로부터 이렇게 빼앗아내는것도 성차지 않아 이자는 아무 죄도 없는 농민들을 붙잡아다 불효죄니, 불목죄니 하는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우고 강짜로 2만여냥의 돈을 빼앗아냈다. 이런 날강도질과 사기협잡으로 긁어모은 돈만 해도 무려 5만냥이나 되였다.

지어 이자는 태인고을의 원노릇을 해먹던 제 애비의 비각(비석을 보호하는 집)을 세운다고 하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농민들로부터 1 000여냥의 돈을 강탈해냈다.

그자는 만석보라는 저수지의 뚝이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그밑에 필요도 없는 새 뚝을 쌓게 하고 가을에 물세로 좋은 논 한마지기에서 흰쌀 2말씩을 빼앗았는데 모두 700여섬이나 되였다.

참고참아오던 농민들의 원한은 터지고야말았다.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점의 불꽃으로 남아있게 되였다.》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용감무쌍하고 훌륭한 사람이였다.

전봉준은 청년시절에 아버지 전창혁과 함께 글방훈장을 하면서 당시 자본주의침략과 봉건적악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와지고 인민들이 도탄속에 헤매이는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것을 결심하였다.

아버지 전창혁은 1893년에 두차례나 농민대표들을 이끌고 고부관청에 들어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이대며 투쟁을 벌리다가 조병갑에게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고부농민폭동

참고참아오던 고부농민들의 원한은 진정서를 가지고 고을관청에 갔던 40명의 대표들이 조병갑에게 쫓겨나고 그 앞장에 섰던 전창혁이 학살당하자 폭발하고야말았다.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의 지휘하에 1 000여명의 농민들은 단숨

에 20리 길을 달려 고부관청을 들이치고 토지문서와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렸으며 무기고를 짓부시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조병갑은 전주로 도망쳤다. 농민들은 악질관리들을 끌어내여 징벌하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석방하였으며 쌀창고를 열어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폭동이 시작된지 3일만에 폭동군은 1만명으로 늘어났다.

10여일간 투쟁을 벌리던 농민들은 악질통치배들을 징벌하려던 목적이 달성되자 일단 흩어져갔다.

고부농민폭동에 놀란 봉건정부는 조병갑을 처벌하고 새 군수와 함께 리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새 군수와 안핵사는 폭동군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며 재물을 략탈하는데서 조병갑이 못지 않았다.

고부농민폭동의 불씨는 드디여 갑오농민전쟁의 불길로 타번졌다.

농민전쟁의 시작

조성된 정세에서 전봉준은 새로운 대규모투쟁을 결심하고 보국안민과 페정개혁을 위해 농민들이 들고일어날것을 호소하였다.

이해 3월 고부 백산에서는 8천명의 농민들이 모여 전봉준을 대장으로, 손화중, 김개남을 부대장으로 하는 농민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여기에 이른것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우에다 두려고 하는것이다. 량반과 부자들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감사)과 고을원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떠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킬수 없을것이다. 호남창의대장소. 백산에서》

농민군은 서울로 쳐들어가 특권량반통치배들을 쳐없애며 왜놈과 서양오랑캐들을 몰아낼것을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3. 농민군의 련속적인 승리, 전주성점령

농민군의 련속적인 승리

4월 3일 농민군은 백산을 포위공격해오는 1 300여명의 토벌군에게 반격을 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6～7일에는 황토현에서 800여명의 적들을 살상하고 총통 600여정을 로획하였다. 농민군은 정읍, 흥덕, 무장, 고창 등 전라도 여러 고을들을 련속 점령하면서 1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농민전쟁의 불길은 공주, 청산을 비롯한 충청도 여러 고을과 경상도에서도 세차게 타번졌다. 이리하여 3남지방의 봉건통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교활한 봉건정부는 전라감사 김문현을 파직시키고 조병갑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리용태를 정배보내는 한편 수백수천의 토벌군을 련이어 파견하였다.

4월 22일 농민군은 장성군 황룡촌에서 신식으로 무장한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대포 2문을 비롯한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전주성점령

4월말 농민군은 서울을 향해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과정에 전라감사가 틀고앉아있는 전주를 점령하였다.

호남지방 봉건통치의 아성인 전주를 빼앗긴 봉건정부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전주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내몰았으나 숱한 사상자만 내고말았다.

4. 일본, 청나라의 무력간섭, 전주화의와 집강소

일본, 청나라군대의 무력간섭

멸망의 공포에 떨던 봉건통치배들은 농민군의 해산과 투항을 설교하는 륜음과 효유문을 련발하는 한편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그러지 않아도 간섭의 구실을 찾지 못해하던 청나라군대는 5월초에 1 500명이나 조선에 출병하였다.

이렇게 되자 청나라와 경쟁적으로 조선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1만명의 대군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되여 안팎의 반동세력이 련합하여 농민군에게 달려들게 되였다.

전주화의와 집강소

청하지도 않은 대규모 일본침략군이 기여들자 더욱더 바빠난 봉건정부는 당장 위급한 고비를 모면하려는 속심으로부터 농민군에게 화의를 제기하였다.

5월 8일 전주에서 농민군과 봉건정부사이에 담판이 진행되였다.

농민군은 화의조건으로 폐정을 개혁할데 대한 27가지 요구를 봉건정부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봉건정부의 속심을 모르지 않았지만 외래침략으로 나라에 조성된 위기를 가시며 농민군의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화의에 동의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전주화의라고 한다.

전주화의에 따라 농민군은 전주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53개 고을에 농민들의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집강소는 농민들이 제기한 폐정개혁의 실시를 감독통제하였다. 이때 전라도의 지방통치기관들은 완전히 마비되였으므로 사실상 집강소가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집강소는 각 고을에서 노비문서와 빚문서를 없애고 말과 무기들을 모아 농민들의 무장을 강화하였으며 집강소를 지키는 호위군을 조직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문건을 검열하고 인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신소도 처리하였다.

5. 농민전쟁의 재발, 공주대격전

그해 9월 농민전쟁은 다시 일어났다.

그것은 봉건정부가 폐정개혁을 하지 않고 토벌책동으로 농민군을 배신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봉건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한편 청일전쟁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더욱 엄중히 짓밟았기때문이였다.

을 농민군의 공격목표는 봉건통치의 아성인 서울이였다.

전봉준이 또다시 투쟁의 기치를 들자 전주 북쪽 삼례에는 애국적인 량반과 유생들, 관군병사들과 하층지휘관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모여들었다.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에서도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충청도 동학의 상층부들은 자기 영향밑에 있는 충청도농민군이 전라도 농민군과 련합하여 서울로 쳐들어가는것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전라도농민군이 그들을 설복하여 련합을 실현하기까지는 한달이나 걸렸다.

참으로 농민군으로서는 귀중한 시간을 잃었고 큰 손실을 입은 셈이였다.

그것은 일제침략군과 관군에게 토벌준비를 갖출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10월 21일에야 농민군은 서울공격을 위해 충청도 론산에 모이게 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은 더욱 늘어나 거의 23만에 이르렀다.

전봉준은 일본침략자들을 내몰기 위하여 각계각층 모든 력량이 단합하여 싸울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충청감사에게도 보냈다.

많은 관군지휘관들과 하급관리들까지 농민군편으로 넘어왔다.

이리하여 갑오농민전쟁의 가장 크고 격렬한 싸움이 충청도 공주일대에서 거의 한달동안이나 벌어지게 되였다.

참으로 공주시가를 중심으로 30여리어간에 있는 리인, 봉황산, 효포, 웅치, 우금치 등 크고작은 모든 마을과 고지들은 그대로 처절한 싸움판으로 되였다.

10월 21일 목천 세성산대격전에서 1만명의 농민군은 근 5 000명의 정예한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의 공격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으나 많은 손실을 입고 뒤로 물러서게 되였다.

그러나 23일 리인전투에서는 120명의 일제침략군을 죽이고 300명을 부상시킨 후 또다시 효포에서도 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효포-웅치-우금치의 30여리 공주주변 산과 들은 농민군으로 새하

얗게 뒤덮였다.

농민군은 3면으로 공주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들이댔다.

길 하나, 봉우리 하나를 놓고 총탄이 우박치듯 쏟아지는 속에서 40차, 50차의 피어린 쟁탈전이 벌어졌다.

농민군의 공주공격은 11월 상순까지 두차례나 벌어졌다.

그러나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공주대격전은 실패하고말았다.

막대한 희생을 낸 농민군은 공주에서 철수하였다. 농민군은 력량을 보존하며 앞으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오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각지의 일부 개별적농민군부대들은 12월경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농민군부대를 해산한 전봉준은 일부 직속부대를 거느리고 순창에 가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체포되였다.

전봉준은 1895년 3월 손화중, 최경선 등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서울감옥에서 원쑤들에게 사형당하였다.

이리하여 농민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였다.

6. 농민전쟁의 력사적교훈과 의의

나라를 위해, 억압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기발을 들고 천만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무찌르던 전봉준 녹두장군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이 나라의 애국적인민들은 그것이 애달파 시골의 한갖 이름없는 글방훈장이였던 그를 어릴 때 이름을 붙여 녹두장군으로, 갑오풍운의 총아로 노래불러 전해온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아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것은

첫째로, 농민군이 옳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데 있었다.

지방관청과 서울에 쳐들어가서 몇몇 악질량반통치배들이나 쳐없앨것을 목표로 할것이 아니라 봉건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이 주인된 새 세상을 세울것을 목표로 해야 하였다.

투쟁방도에서는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조직적인 폭력투쟁으로 봉건제도자체를 뒤엎는것으로 되여야 하였다.

그러나 100여년전 전봉준과 같은 농민군지휘자들은 아직 그런 높은 사상의식을 가질수 없었으며 그들을 가르쳐줄 탁월한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다.

둘째로,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잘못한데 있다.

례하면 전주를 점령했을 때 곧장 그 기세로 서울로 쳐들어갔어야 할것이였다. 또 휴전기간에도 투쟁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무모하게 싸운것도 그렇다.

셋째로,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무력간섭과 봉건통치배들의 반역행위에 있었다.

이로부터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옳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일단 투쟁을 시작했으면 계속 진격하여 외래침략세력과 낡은 사회제도자체를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갑오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데 있다.

농민전쟁은 일본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투쟁에는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마침내 이해에 부르죠아개혁이 실시되게 되였다.

다음으로 그 의의는 갑오농민전쟁이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제4절. 갑오개혁

1894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두가지 큰 사변이 있었다.

하나는 갑오농민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부르죠아개혁이 실시된것이다.

부르죠아개혁이란 봉건국가의 락후한 여러가지 제도를 뜯어고쳐 근대적인것으로 만드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락후한 봉건국가를 근대적인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로 만드는것이였다.

이런 부르죠아개혁을 하자고 한 사건이 10년전 김옥균이 일으킨 갑신정변인데 그것은 3일천하로 실패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반영된 진보적운동은 비록 곡절은 있을지언정 세월의 흐름속에 계속 이어지며 발전한다.

1884년 개화파들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은 봉건정부안의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계속되여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을 낳게 하였다.

1. 개혁기운의 성숙

… 더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어서 빨리 봉건적인것을 다 없애고 근대적인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나라를 부강발전시킬수 있다.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것은 농민전쟁과 같이 인민대중이 들고일어나 썩어빠진 봉건통치를 당장 고치라고(페정개혁) 들이대지, 게다가 일본침략자들이 무력간섭을 하고 청나라군대까지 들어와 내정간섭을 하니 나라에 심한 위기가 조성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혁신관료들뿐아니라 봉건정부대신들과 국왕까지도 모여앉으면 페정개혁에 대한 문제를 론의하군 하였다.

《오늘 백성들이 처한 사정은 매우 어렵다.… 한해에 100여냥의 세금을 내야 하며… 입에 풀칠도 할수 없게 가난이 막심하다.… 만일 큰 변혁, 큰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실효도 없을것이다.》고 하면서 농민전쟁의 원인을 봉건통치배들의 모진 학대와 착취에서 찾았다.

또 혁신관료의 중심인물인 김홍집은 대신회의에서 폐정개혁에 대한 론의는 많았지만 실천한것은 없다고 하면서 폐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으로 국가정치를 진보적으로 개혁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나섰다.

2. 교정청, 군국기무처의 조직과 갑오개혁의 실시

갑신정변실패후 개화파를 대신하여 국정개혁(즉 우로부터 실시되는 부르죠아개혁)사업을 추진시켜오던 혁신관료들은 마침내 1894년에 국왕의 승인하에 개혁을 맡아하는 기구들을 창설하고 그를 통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1894년 6월 11일 첫 개혁담당기구로서 교정청이 설치되였다.

교정청에는 김홍집, 어윤중 등 주요혁신관료들이 많이 들어갔다.

교정청은 전주화의에서 제기된 폐정개혁조항들을 실현하며 자체의 힘으로 점차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간섭책동을 막을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로부터 교정청은 우선 10년안에 인민들에게 들씌운 모든 잡세를 폐지할데 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다음으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조건에 기초하여 봉건적악페를 청산할데 대한 12개조 개혁안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때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하여 6월 21일 왕궁을 습격하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23일에는 청나라군대를 불의에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리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더욱 엄혹한 위기가 조성되자 혁신관료들은 6월 25일 교정청을 새롭게 발전시킨 개혁담당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수구파들을 제거하고 혁신정권을 세웠다.

김홍집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는 나라의 중요법안들을 심의채택하는 기관으로서 전면적인 부르죠아개혁조치들을 취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취한 중요한 부르죠아개혁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지난 시기의 무엇을?	개혁조치로써 어떻게 고치였는가?
정치분야	왕이 최고권력을 행사하고 대신들의 회의에서 주요문제를 토의하며 의정부는 왕의 정치를 돕는 일을 하였다면	군국기무처를 자본주의사회의 의회와 같은 최고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의정부를 중앙정부 즉 최고집행기관으로 만듦. 그밑에 10개의 아문을 둠. 의정부 장관은 총리대신
	량반들만 참가하는 관리선발제도인 과거법을 없애고	량반, 상민 가리지 않고 재능과 자질에 따라 시험을 치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따라 관리로 임명하도록 함.
	대외관계에서 외국과의 조약체결은 왕과 대신들의 결심에 따라 했다면	외교사업을 맡은 외무아문에서 공동심의하며 의정부 총리대신의 비준을 받아 시행하게 함.
	나라의 토지, 산림, 광산을 량반관료들이 제멋대로 외국인에게 팔던것을	금지시킴.
경제분야	호조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한편 선혜청 등 여러 기관이 제가끔 국가돈(재정)을 가지고있었다면	탁지아문이 국가재정을 통일적으로 장악관리하도록 함. (국가재정의 혼란과 무질서한 수탈체계를 일정하게 수습할수 있게 됨)
	조세, 세금을 쌀, 천으로 바치던 것을	돈으로 받도록 함.
	자, 말, 저울이 각각 여러가지던 것을	각각 한가지로 통일시킴.
	당오전, 당백전 등 여러가지 엽전돈을	은을 본위로 하여 그만한 값이 나가는 한가지의 돈을 만드는 화폐제도를 세움.
사회문화분야	교육사업이 락후한 상태였다면	청년들을 류학 보내고 새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량반, 상민, 노비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신분제도, 사람을 팔고 사는것.	일체 페지함.
군사분야	봉건적인 군사제도	근위대로서 친위영을 조직, 부대들을 새로 편성. 통일적군사지휘체계 수립, 군사장비의 근대화 시도.

교정청과 군국기무처에 의하여 실시된 갑오개혁은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며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개혁이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봉건량반출신의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우로부터 실시된 개혁이였으므로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그중에서 중요한것은 농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자고 하지 못한것이였다.

이와 함께 낡은 봉건제도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있던 여러가지 악페들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것이였다.

3. 갑오개혁의 파탄

조선이 발전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안팎의 반동세력은 갑오개혁을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앞잡이인 박영효를 군국기무처에 박아넣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저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20개조내정개혁안을 받아들이라고 봉건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거기에는 조선에서 근대적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왕의 전제권을 회복하며 군국기무처를 국왕의 정치를 보좌하는 아무 권한도 없는 기구로 만들자는 조항이 있었다.

결국은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당시 혁신관료들은 일본침략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으로 하여 군국기무처는 끝내 해산되고 국왕의 전제권이 회복되였다.

그리하여 갑오개혁은 중도에서 실패하고 우리 나라는 또다시 근대적발전의 길이 막히게 되였다.

갑오개혁의 실패는 일본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근대적발전의 길을 가로막은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또한 그것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철저히 쳐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진보적인 개혁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갑오개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갑오개혁은 인민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였으며 또 불철저하게나마 실시된 부르죠아개혁으로서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갑오개혁은 그후 우리 나라 민족운동을 일정하게 촉진하였다.